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24期(2026.11.16) WWW.MINGHUI.ORG 한글판 1088호 minghui.or.kr



▲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중양절에 개막했다.

주 요 내 용

【중국법회】 수련 중 정념을 확고히 하니 대법이 신의 위력 드러내

【중국법회】 시련 앞에서 자신을 수련생으로 여기다

【중국법회】 정념으로 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을 구하다

【해외법회】 두 형제: 대법 속에서 성장하며 법을 외우고 마음을 닦아 난관을 돌파하다

〈목차〉

제23회 중국법회

수련 중 정념을 확고히 하니 대법이 신의 위력 드러내 ····· 3

시련 앞에서 자신을 수련생으로 여기다 ····· 22

정념으로 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을 구하다 ····· 32

일하면서 마음을 닦다 ····· 45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친 후 겪은 수련 과정 ····· 54

인연 있어 득법해 굳건히 수련하다 ····· 65

해외법회

수련 인연을 소중히 여기다 ····· 74

두 형제: 대법 속에서 성장하며 법을 외우고 마음을 닦아 난관을 돌파하다 ····· 82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련 중 정념을 확고히 하니 대법이 신의 위력 드러내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7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여성 대법제자로, 수련한 지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사존의 자비로우신 보살핌 아래 제자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래에 수련 중 겪은 크고 작은 체득을 글로 써서 사존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1. 행운으로 법을 얻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응석받이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귀여워해 주셨고 오빠들은 양보해 줬기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과 지낼 때도 이런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1)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다

1996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매일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몹시 그리워하다 보니 몸도 갈수록 나빠져 자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링거를 맞았습니다. 집안의 유전병 내력과 남편의 배신으로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고, 저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 세상을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삶과 건강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던 바로 그때, 직장 사람들이 어떤 공법을 연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동창이 그 공법을 연마했는데 예전에는 여름에 수박도 먹지 못하고 찬 찐빵도 먹지 못했지만, 연마한 지 두 달도 안 돼 이제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신기한 공법도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며 동창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창은 "마침 오늘 저녁에 직장 회의실에서 사부님의 설법 영상을 상영하니 와서 봐"라고 말했습니다.

2) 설법 영상을 보다

밤이 되어 사부님의 설법 영상을 보니 무척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동북 지역 억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부모님도 모두 동북 지역 출신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앉아 사부님의 설법을 들으며 이 법이 정말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매일 새벽 3시 40분에 연공장에 가서 연공했고, 다섯 가지 공법을 한 번에 모두 연마했습니다. 비바람이 불든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든 언제나 변함없이 연공했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법공부 장소에 가서 법공부를 했습니다. 한동안 법공부와 연공을 하며 대법이 수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몸에도 천지가 뒤바뀔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 체중이 10kg 늘었습니다. 때로는 밤에 잠을 잘 때 몸이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때로는 몸이 로켓처럼 위로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었는데 무척 신기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간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광경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법공부를 하며 많은 법리를 깨달았고 심성도 계속 높아졌으며 가정도 화목해졌습니다. 매일 법공부를 하거나 법 암기를 했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대법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이는 이후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데 좋은 기초가 됐습니다.

2. 베이징에 가서 법을 수호한 여정

1) 성(省) 정부에 가다

1999년 7월 20일, 수련생에게서 대법이 불법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수련생이 성 정부에 청원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성 정부로 갔습니다. 당시 성 정부 정문 앞에는 많은 수련생이 와 있었고 모두 조용히 도로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특수경찰과 대형버스가 나타났습니다. 특수경찰은 수련생들을 몰아내며 대형버스에 강제로 태우려 했지만, 수련생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버스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성 정부 앞 도로 전체와 앞쪽의 작은 화원까지 수련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성 전체 수련생들이 잇따라 모여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일제히 '논어(論語)'를 암송했고 그 소리는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천지를 뒤흔들 만큼 장엄했으며 지금까지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결국 저희는 아주 넓은 마당으로 납치됐고 각자 소속된 직장에 인계돼 현지로 돌아왔습니다.

2) 베이징에 가다

1999년 11월 어느 날, 수련생 집에 갔다가 현지 파룬궁 보도소장도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막 베이징에서 돌아온 참이었고 베이징에 다녀온 상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모두 베이징에 가서 법을 수호하고 사부님과 대법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해 눈물을 흘렸으며, 그 자리에서 저도 베이징에 가서 사부님과 대법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일행 6명은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철도 경찰이 갑자기 제 가방을 수색하다가 대법서적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기차에서 끌려 내려와 역 안의 한 방에 갇혔습니다. 11월의 밤은 이미

몹시 추웠고 방은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바짝 붙어 앉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으며 함께 수련 심득을 교류했습니다.

그 후 현지 경찰에게 끌려 돌아왔고 경찰은 가족들도 불러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머리를 조아리시며 다시는 베이징에 가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쓰지 않았고 얼마 후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야 시동생이 그 경찰과 아는 사이여서 대신 보증서를 써주고 무마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도소장은 불법적으로 2년형 노동교양 처분(강제노동)을 받았고 다른 수련생 1명은 불법적으로 7일간 구류됐습니다.

3) 다시 베이징에 가다

2001년, 다시 베이징에 가서 소원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동행한 사람은 저희 연공장의 연세 많은 수련생 세 분과 시내의 수련생 두 분이었습니다. 저희 일행 6명은 베이징행 기차에 올랐고 이번 베이징행은 무척 순조로웠습니다.

천안문 광장으로 가는 지하보도에 도착해 수련생들을 2명씩 한 조로 나눴습니다. 저와 한 수련생이 맨 앞에서 걷고, 뒤의 한 조가 저희 조를 바짝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맨 뒤의 두 수련생은 앞서가는 수련생들을 주시하며 너무 빨리 걷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천안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지하보도를 빠져나와 보니 맨 뒤의 한 조가 따라오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에게 지하보도 위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아래로 내려가 찾았지만, 30분 동안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천안문 광장에는 관광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중에 상의한 끝에 더는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작은 현수막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안문 광장에 도착해 화표(華表) 아래에 섰습니다. 다른 두 수련생은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5m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당시 마음이 긴장돼 쪼그려 앉아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일어나 "시작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은편 수련생과 눈빛을 교환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현수막을 꺼내 수련생과 양쪽 끝을 각각 잡고 서로 팔짱을 낀 채 관광객이 많은 곳을 향해 걸어가면서 외쳤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우리 사부님의 결백을 밝혀라!" "대법의 결백을 밝혀라!"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군중 속에서 한 관광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조금 있으면 그들이 와서 당신들을 잡아갈 거예요!"

계속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키가 크고 마른 군인 한 명이 험악한 기세로 달려와 현수막을 확 움켜잡았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군중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뒤돌아 맞은편에 있던 수련생을 보았는데 그 수련생이 제 뒤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달리다가 사람이 비교적 적은 곳에 이르자 멈춰 섰고 그들에게도 더는 달리지 말라고 손짓했습니다. 그제야 그 조에서는 수련생 한 명만 달려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수련생은요?"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멍하니 몸이 굳어버려서 뛰지 않더군요." 우리 3명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3.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다

1) 많은 진상 자료

2000년, 수련생들이 많은 양의 진상 자료를 만들어 줬고 일부 외지 수련생들이 보내온 자료도 있었습니다. 매번 각자 자료를 가져가

배포했습니다. 주택단지 건물 복도로 갈 때는 진상 소책자를 작은 봉지나 봉투에 넣어 문에 걸어두었습니다. 걸기 어려운 문에는 양면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농촌에 갈 때는 사탕을 포장하는 봉지에 진상 자료를 넣었습니다. 때로는 수련생과 함께 배포했지만 대부분 혼자 배포했습니다.

한번은 수련생 두 명과 함께 진상 자료를 몇 꾸러미나 가지고 한 주택단지에 가서 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배포했습니다. 밤새 걸어 다니며 길을 따라 진상 자료를 모두 배포했습니다. 그날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고 마치 별들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 농촌에서 짖는 개들

또 한번은 저 혼자 진상 자료를 한 꾸러미 가득 가지고 농촌에 배포하러 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막 도착했을 때 10여 마리의 개가 저를 향해 사납게 짖어댔습니다. 가슴 앞에 손바닥을 세우고 정념을 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 몇 마리가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듯 낑낑거리며 울부짖었고 다른 개들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흩어졌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조롭게 집집마다 빠짐없이 배포를 마쳤습니다.

인근 마을에도 모두 진상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께서 무슨 소문을 들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처 마을에 누가 파룬궁 자료를 배포했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아, 그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을 보니 제가 배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칠흑같이 어두운 길

또 여러 차례 혼자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걸으며 진상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길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 무렵에는 우리 지역 공공시설이 무척 낙후돼 주요 도로가 아니면

가로등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 계시고 법이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4. 정념으로 세뇌반을 탈출하다

2002년 늦봄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리집으로 달려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몸을 피하거라. 사람들이 너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집에 와 있다.” 서둘러 옷가지를 간단히 챙기고 대법서적 한 권을 가지고 외지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1) 사오(邪悟)한 자들의 악행 가담

약 1주일이 지난 후, 이미 사오(邪悟, 삿되게 깨달음)한 사람 2명이 우리집에 찾아와 가족들에게 권했습니다.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을 거예요. 세뇌반에 데려가면 그 사람도 알게 될 거예요.” 남편과 가족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경찰과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외지에 있는 친척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사부님마저 인정하지 않게 됐나요? 그들이 당신들을 속이고 있어요. 사부님 설법반에도 참가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들에게 속을 수 있나요?”

결국 그들에게 강제로 납치돼 세뇌반으로 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식했지만, 이틀 동안 단식한 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달릴 힘이 없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도망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세뇌반

세뇌반에서 독방에 감금됐습니다. 그들은 사부님을 공격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제게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다가가서 텔레비전을 끄면 그들이 다시 켰고, 제가 또 다가가서 끄자 막아섰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한 사람을 텔레비전 옆에 세워 지키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절대 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침대에 누워 잠을 잤는데 아주 푹 잤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가지해 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오한 직원 2명이 저를 전향시키려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바탕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그런 그릇된 이치와 사악한 말로 나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런 수법은 집어치우세요." 그들의 말은 전혀 저를 설득하지 못했고 저는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간파했습니다.

사악은 한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아버지와 오빠, 시부모님, 남편과 아이까지 모두 불러와 저를 설득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울고불고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제 뺨을 한 대 때리기까지 하셨지만 여전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빠가 저를 한 방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공산당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잘못하면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저는 "죽더라도 연공할 거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자, 당시 몸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고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3) 가자!

불법 감금돼 있던 세뇌반에는 목욕탕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 매일 목욕하러 갔고 식사는 목욕탕과 연결된 식당에서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끌려 식사하러 갔을 때 식당에 목욕탕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바로 목욕탕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식사했고 때로는 그들이 음식을 방으로 가져와 먹었습니다.

오빠가 제게 그런 말을 했던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후 목욕하러 갔습니다. 여경 3명이 저를 데리고 목욕하러 갔는데 그들은 매일 교대했습니다. 여경 한 명은 아마 밤에 그곳에서 묵지 않는 것 같

았습니다. 그녀가 “나는 씻지 않고 목욕탕 입구에서 기다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경 한 명은 먼저 씻고 밖으로 나갔고 나머지 한 명은 여전히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으로 나갔던 여경이 다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와 목욕탕 안뜰에 있었습니다. 목욕하지 않은 여경은 목욕탕 바깥뜰에 서 있었는데 아마 출입문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나와 보니 안뜰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당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자!’ 식당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식당 정문을 통해 뛰쳐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길 건너편에 있는 대문을 향해 갔습니다. 큰길을 따라 달리면 그들이 반드시 따라잡을 것 같았기에 길 건너편 마당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4) 두 공간의 나

속으로 ‘달려서는 안 돼. 허겁지겁 달리면 나중에 그들이 행인들에게 물었을 때 내가 길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신기한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른 한 공간에 있는 제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쪽 몸은 달리지 않고 걷고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가지해 주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5) 유난히 밝은 달

길 건너편 마당에 있는 큰 화단으로 가서 그 위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큰길 한가운데에 이르러 아직 대문에 도착하기 전부터 목욕탕 쪽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도망쳤다! 도망쳤어!” 화단에 숨어 있으면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쪼그리고 앉아 있던 다리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밖이 조용해진 것 같았고 화단에서 그

리 멀지 않은 건물의 집들도 모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은 달이 유난히 밝아 걸어갈 때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담장은 화단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담장 옆에 커다란 흙더미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흙더미 위로 올라가 담장 밖을 살펴보니 풀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풀 아래가 물인지 땅인지 확신할 수 없어 벗어놓은 옷이 들어 있는 봉지를 아래로 던져봤습니다. 봉지가 가라앉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내려서니 매우 푹신한 느낌이 들었고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틀림없이 사부님께서 제자를 보호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담장 옆에 마침 커다란 흙더미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키가 150cm밖에 안 되는 제가 그렇게 높은 담장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보호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6) 돈을 내고 택시를 타다

담장 밖은 농경지였습니다. 길가로 걸어가 택시 한 대를 잡아타고 다른 성에 있는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납치돼 올 때 경찰이 몸을 수색했는데 당시 700위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는 돈을 은밀한 곳에 숨겼고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택시비로 200위안을 썼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터미널 화장실에 가서 다리에 묻은 진흙을 간단히 씻었습니다. 양쪽 발에 모기에 물린 붉은 점들이 빽빽하게 나 있어 성한 피부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에 가서 양말 한 켤레를 사서 신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시 잡혀가지 않기 위해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 자료점을 설립하다

1) 자료점의 중책을 맡다

2년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지 수련생 한 명이 저를 찾아와 현지 자료점 업무를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것이 사부님의 안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현지 수련 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됐고 기존 자료점들도 모두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3명은 자료점을 설립했습니다. A 수련생은 기술과 컴퓨터, 인쇄 장비 유지보수 및 자료 다운로드를 담당했고 저는 인쇄와 제본을 담당했으며 C 수련생은 진상 자료 전달을 담당했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몇 년간 평온하게 지내며 현지 수련생들에게 끊임없이 진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진상 소책자, 전단지, 스티커, 대법 진상 호신부(護身符), '9평 공산당' 등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법 서적과 사부님의 다른 설법 등도 제작했습니다.

2) 주민센터의 감시

이 기간에 이사도 몇 번 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점은 한 수련생의 친척 집에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집에 들렀다가 "이 방은 왜 문이 닫혀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사했습니다.

친구의 빈집을 빌려 그곳에서 진상 자료를 인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문에 공안이 붙여놓은 쪽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파출소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이웃을 만났는데 이웃이 말했습니다. "여기 사세요? 경찰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등록하러 가라고 알려주라더군요." 저희는 위험을 감지하고 그날 즉시 장비를 한 수련생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수련생 집에서도 몇 년간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3) 가는 곳마다 자료점을 설립하다

2011년, 외지로 일하러 가야 했기에 한 수련생을 찾아가 장비를 그녀에게 넘겨줬습니다.

외지에 도착한 후 외지 수련생들과 연락이 닿았고, 그곳에서도 작은 자료점을 설립해 그 지역 수련생들에게 진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6. 실명으로 장쩌민 고소

2015년 8~9월 무렵, 명혜망에서 적지 않은 수련생이 장쩌민 사악한 불량배 집단을 실명으로 고발하고, 그들이 여러 해 동안 대법제자들을 박해한 범죄를 고소하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자주 만나는 수련생을 찾아가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련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실명으로 장쩌민과 사악한 불량배 집단이 대법을 박해한 범죄, 그리고 저 개인에게 가한 박해를 고발하는 거예요.” 수련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써요!”

각자 장쩌민 고소장을 작성해 인쇄한 뒤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수시로 택배 정보를 확인했고, 고소장이 이미 베이징에 도착한 것을 보고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어서 최고인민검찰원 웹사이트에서도 장쩌민 사악한 불량배 집단이 저지른 범죄를 실명으로 고발하며 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남기고 고소장 첨부파일 등도 제출했습니다.

고향 수련생들이 저를 찾아와 장쩌민 고소장 인쇄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10여 부가 있었습니다. 수련생들이 자필로 쓴 고소장을 문서 파일로 입력한 뒤 인쇄하고 각각 제본해 그들에게 가져다줬습니다.

연말이 되자 주민센터 직원이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편지를 썼습니까?” 저는 “썼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러자 그들은 여러 차례 우리집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직도 연공합니까?” 저는 “당연히 연공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법서적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전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왜 연마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들은 “집에서 연공하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흐지부지됐습니다.

7. 구류소에서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하다

1) 속아서 체포되다

2019년 여름, 많은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어느 날 오전,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다며 내려와 교통경찰에 신고하고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경찰 8~9명이 저를 에워싸며 다가왔습니다. 벗어나려 하자 제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먼저 저를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경찰 몇 명이 저를 붙잡고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불법 가택수색을 하려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수색영장이 있습니까?” 빈 수색영장을 꺼내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백지 수색영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집은 도어록이었는데 그들은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건물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 파룬따파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가짜이며 파룬궁에 대한 박해입니다!” 주택단지 건물 아래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제가 진상 자료를 배포할 때 악인에게 신고당했고,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저를 찾아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 파출소에서 진상을 알리다

파출소에 도착해 저를 감시하는 경찰에게 끊임없이 진상을 알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 한 명이 저를 한 방으로 데려가 불법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앉아”라고 하길래 저는 “안 앉을 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앉지 않으면 어떻게 물어봐?” 저는 “수갑을 풀어주면 앉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불러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도 모르면서 왜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그는 다른 질문도 했지만 저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파룬궁 연공을 시작했어?” 이 질문을 듣고 답변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진상을 알릴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는지, 수련 전후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대법을 수련하며 심성이 크게 높아져 다른 사람과 사소한 일로 따지지 않고 항상 남을 배려하게 됐으며 이익도 담담하게 보게 됐다는 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제자는 진선인에 따라 수련하며, 파룬따파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져 있어 해외로 나가기만 하면 대법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상황을 볼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서명하라고 했지만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자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미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을 컵라면을 하나 준비하더니 제게도 한 그릇 줬습니다. 옆에서 저를 감시하던 경찰이 말했습니다. “구금된 사람한테 컵라면 준 적 한 번도 없어. 이런 대우는 처음이야.” 저는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3) “성격이 달라요”

낮에 그들은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남편은 몹시 초조해하며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가택수색을 하겠다며 도어록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어록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고 남편은 외지에서 일해 아직 번호를 알려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도어록 하나에 거의 2000위안이나 해. 얼른 비밀번호 말해줘. 들어가서 수색 한 번 하면 되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들의 수색에 협조하는 게 돼요. 강제로 자물쇠를 뜯는다면 저에 대한 박해예요. 두 가지는 성격이 달라요.”

끝내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자, 경찰은 열쇠공을 불러 도어록을 뜯어냈습니다. 저는 파출소 맨 끝 방, 그들이 ‘우리’라고 부르는 곳에 불법 감금됐습니다. 안에는 청년 3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그들은 모두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했습니다.

4) 구류소에서 진상을 알리다

파출소는 저를 시 공안국과 정법위원회에 보고했고, 밤늦게 경찰은 15일간 구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파출소 경찰 한 명이 저를 데리고 채혈과 지문 채취 등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좀 협조해”라고 하자 저는 “협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협조 안 하면 강제로 할 거야”라고 하자 저는 “강제로 해도 협조 안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에이, 됐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차로 저를 구류소에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어디

든 진상을 알릴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구류소 감옥경찰은 저를 한 감방으로 데려갔는데 그 안에는 약 20명이 있었습니다. 구금된 사람 대부분은 도박, 싸움, 절도, 성매매 등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금세 친해졌고 한 사람씩 진상을 알렸습니다.

청년들은 삼퇴를 권하기 쉬워 말만 하면 탈퇴했습니다. 구류소에서는 매일 사람이 나가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나가는 사람은 모두 삼퇴했고, 들어오는 사람에겐 다시 진상을 알렸는데 대부분 삼퇴했으며 단 2명만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파룬따파가 무엇인지, 진선인에 따라 수련하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또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한 글자씩 읽도록 가르쳤고, 온전히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알려줬습니다.

저는 매일 파룬따파의 훌륭함과 파룬따파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전통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게 없으세요? 아는 것도 많고 학식이 풍부하시니 분명 대학교 선생님이시죠?" 저는 "아니에요. 대법 사부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불법 감금된 시간이 가장 길었기에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삼퇴 명단이 헷갈리지 않게 매일 머릿속으로 삼퇴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전후로 20여 명에게 삼퇴를 권했고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 탈퇴했습니다. 나중에는 안의 사람들이 저를 '왕언니'로 모시려 했습니다. 저는 "저는 무슨 왕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만 기억하시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들을 바라보다 자비심이 나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로, 이번 정법에서 천체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늘만큼 큰 담력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 와서 세뇌돼 아무것도 모르게 됐고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습니까. 사존의

제도가 없다면 어쩌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원래 천체도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중생을 자비롭게 제도해 주시는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8. 원망심을 수련해 제거하고 정에서 벗어나다

1) 남편의 태도가 변하다

2022년 하반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떨어져 살았고 세 식구가 각기 다른 세 곳에서 지냈습니다. 거듭 고민한 끝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그날 밤, 남편은 제게 기선 제압을 하려 했고 말투도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무척 이상했지만 '됐어, 돌아왔으니 돌아온 거지'라고 생각하며 남편과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자주 넘어졌는데 몹시 심하게 넘어졌지만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아프지도 않았으며 옷조차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별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사부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으로, 저 자신을 잘 수련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연로하신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셔서 아버지를 돌보느라 바빠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남편은 제 말을 무조건 따랐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온 후 남편은 태도가 몹시 냉담해졌고 집안일도 시켜야만 했으며 안 시키면 앉아서 휴대폰만 봤습니다. 때로 제가 요리하느라 정신없이 바빠 남편을 한참 불러야 왔고 채소를 씻을 때도 건성건성 씻었습니다. 씻고 난 후 확인해 보면 진흙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2) 정면충돌

또 긴 시간이 지난 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제 친척과 사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척 남편이 외지에서 일해 집안에 일이 생기면 자주 제 남편에게 도

움을 청했는데, 그렇게 오가다가 눈이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남편이 그 집 일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나한테 이렇게 냉담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설 연휴 초엿샛날, 시부모님 댁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다가 길에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제 어깨를 움켜잡고 마치 병아리를 들어 올리듯 저를 거울 앞으로 끌고 가며 "당신 얼굴 좀 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온갖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들어 시동생에게 걸고 딸(딸은 그날 할머니 댁에 머무름)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사람 데려가요. 더는 못 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3)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부족함을 찾다

일이 지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자신이 매우 잘못했음을 느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지 않았고 자신이 수련인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속인 일로 여겼습니다. 20여 년이나 수련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형편없이 행동했을까요.

지난 몇 년간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줄곧 난관을 헤쳐 왔지만 심성을 착실하게 수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집착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팠습니다. 남편에 대한 강한 원망심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그런 짓을 하고 가정을 배신한 것을 원망했고, 돈을 벌지 않으며 가정에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등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모두 집착심이며 수련인이 마땅히 수련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다

저는 법공부를 많이 하고 법을 외웠으며, 동시에 강대한 정념을 발

해 원망심과 쟁투심을 제거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로하신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120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 와서 도와달라고 했고, 함께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돌아와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후 제 언행에 주의하기 시작했고 대법 기준으로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때때로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고 가끔은 참지 못하고 말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이런 좋지 않은 생각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지금은 가정환경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남편은 앞장서서 집안일을 하고 요리도 도맡아 합니다. 발정념 시간이 될 때마다 남편은 제게 “곧 시간이야. 발정념 끝나면 밥 먹자”라고 일깨워 줍니다.

예전에 진상을 알릴 때 남편이 그 자리에 있으면 늘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진상을 알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번은 길에서 남편 동창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동창과 인사를 나누자 제가 다가가 그 동창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동창은 예전에 직장에서 하급 간부로 일했으며 당원이었습니다. 순조롭게 그를 설득해 삼퇴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 동창 삼퇴하도록 설득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또 한 사람 구했네”라고 말했습니다.

맺음말

지난 29년간의 수련 과정을 돌아보면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존께서 줄곧 끊임없이 제자를 일깨워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존께 절을 올립니다! 제자는 반드시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시련 앞에서 자신을 수련생으로 여기다

글/ 중국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라는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수련 중 겪었던 몇 가지 일을 글로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한다.

1. “나는 위챗 이름을 당신이 지어준 이름으로 바꿨어요”

올해 5월 초, 나는 이웃 마을의 한 집에 집수리를 하러 갔다. 가보니 이 집 부부는 상하이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부부 모두 나이가 많지 않아 늘 위챗(微信)으로 채팅을 했다. 나는 수련생으로서 남들이 어떻든 먼저 일을 잘 해내어 ‘진선인(眞·善·忍)’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다음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할 기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진상을 알릴 기회를 안배해주셨다. 집주인의 장인이 왔는데,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부부는 거리로 나가 모래를 체로 쳤다. 나는 어르신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해 평안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말했다. “누가 벌써 말해줬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내가 말했다. “삼퇴를 해서 평안을 지킨다는 건, 어릴 적 붉은 스카프를 맸을 때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께서 지금 삼퇴를 하겠다고 동의하셔야만 그 독한 맹세를 지울 수 있고, 그래야 신께서 어르신을 지켜주어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는 건 다 어르신을 위해서입니다. 어르신, 오늘 우리가 따님 댁에서 만난 것도 인연이고, 제가 어르신께 큰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진상을 알려드리도록 하늘이 안배한 것입니다. 어르신, 이제 이해하셨지요? 제가 가명 하나 지어드릴 테니 탈퇴하시고 평안을 지키세요." 어르신이 말했다. "알고 보니 그런 거였군. 나도 붉은 스카프를 매본 적이 있으니 자네 말대로 탈퇴하겠네. 나도 이만 집에 가봐야겠어."

어르신이 가신 후 나도 일을 시작했다. 집주인 아내가 방에 들어오더니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붙잡아도 여기서 안 주무시려고 하네. 기사님은 점심때 쉬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나는 삼퇴를 해 평안을 지키는 것에 대해 그녀에게도 한 번 들려주며 말했다. "당신도 삼퇴를 해서 평안을 지켜야 해요. 실명을 쓸 필요 없이 가명을 지어줄 테니 탈퇴하세요."

이때 그녀의 남편도 방으로 들어오다가 내 이야기를 들었기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에게도 삼퇴를 해 평안을 지켜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내가 말했다. "보세요, 두 분 가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비행기도 타보고 대도시에도 가보셨잖아요. 자손도 번성하고 쌍둥이 외손자까지 두셨고요. 그런데 오늘 누군가 삼퇴를 해 평안을 지키는 법까지 알려주니, 이건 정말 하늘이 내린 큰 복입니다." 부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모두 공산당, 공청단, 소년선봉대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대답했다.

집주인 아내는 기분이 좋아져서 또 휴대폰을 꺼내 손자와 외손자 영상을 보여주었다. 내가 말했다. "제가 온 날 보여주셨잖아요. 일이 바빠서 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우리집 이 일을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불러서 시켰는데, 어찌나 꾸물거리던지 이틀 만에 그냥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사님은 정말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시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아내가 말했다. "우리가 대도시에서 구르던

사람들인데, 이런 것도 못 알아보겠어요?" 내가 말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매사에 '진선인'에 따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저는 어느 집에 가든 똑같습니다. 아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드리며 제 양심껏 일합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기사님 말씀을 믿어요."

3일째 되던 날 이른 아침, 그 집에 일하러 갔더니 집주인 아내가 내게 말했다. "C 기사님, 어제 지어주신 이름이 참 좋아서 내 위챗 이름을 그걸로 바꿨어요. 앞으로는 이 이름만 쓸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말했다. "당신도 위챗 이름 바꿔요. C 기사님이 지어준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빨리 바꿔요, 앞으로는 C 기사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불러요." 남편은 웃으며 "바꿔야지"라고 말했다.

처음에 나는 이 부부가 나이도 젊은 데다 대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라 진상을 알리기 어려울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사부님의 도움 아래 이 가족 모두에게 진상을 철저히 깨닫게 했고 다들 시원하게 삼퇴를 했다. 속인에게 가장 중요한 휴대폰 위챗 이름까지 바꿀 정도니 그들은 정말 구원받은 것이다.

2.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음 집 화장실 수리를 하러 갔다. 도착해서 보니 그 집 아내는 몸에 병이 있어 거동이 불편했다. 내가 말했다. "저는 요새 몸이 안 좋은 분을 보면 무척 동정이 갑니다. 저도 30대 때 온몸이 병투성이였거든요. 그런데 파룬따파를 배운 후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한 알 먹어본 적 없고 병원 한 번 안 갔는데, 온몸의 병이 다 나아서 병 없이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27년은커녕 27일 동안 약을 안 먹는 사람도 아주 드물잖아요. 지금은 정말 병도 많고 재난도 많은 때입니다." 부부는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파룬따파 사부님께서는 '진선인'에 따라 좋

은 사람이 되라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 박해를 일으키는 바람에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대법 안에서 무궁무진한 혜택을 받았기에 제가 얻은 좋은 점들을 두 분께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시고, 예전에 가입했던 중국공산당(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시면 하늘이 온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부는 진상을 이해하고 어릴 적 가입했던 소년선봉대에서 탈퇴하기로 동의했다. 그곳에서 일을 돕고 있던 넷째 형도 삼퇴를 했다.

다음 날 화장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말했다. "우리집 부뚜막 타일이 깨졌는데, 기사님 작업 범위는 아니지만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나는 "그럼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꼭 도와드려야죠. 사부님께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거든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말했다. "말도 마세요. 며칠 전 우리 둘째 삼촌 댁도 집수리를 했는데, 삼촌이 남은 타일을 신발장 안쪽에 붙여달라고 했더니 그 타일공이 안 붙여주더래요. 그래서 안 붙여줄 거면 공구가 있으니 타일 크기만이라도 맞춰 잘라 달라고 했는데, 끝내 그것마저 안 해줬다지 뭡니까." 내가 말했다. "요즘 사람들이 모두 파룬따파를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다들 남을 배려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때 일을 돕던 넷째 형도 다가와서 말했다. "C 기사님은 일도 잘하지만 인품도 참 좋으시네. 보조 일꾼이 제때 일을 못 해내면 가만히 서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서서 도와주시잖아.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집수리할 일 있으면 무조건 C 기사님을 불러야겠어."

오후에 화장실 방수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됐고 집주인도 이를 보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수련 어디에 문제가 생겨 사악에게 틈을 준 걸까.' 나는 꾹

참고 잠시 더 일해 남은 일거리를 마저 끝냈다. 돌아가기 전, 내일 와서 타일을 붙일 테니 일을 지체하지 않게 시멘트를 어떻게 섞고 좀 일찍 비벼 놓아달라고 당부하자 그들은 흔쾌히 알았다고 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가 내게 물었다. “내일 일할 수 있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올 때 아침 일찍 시멘트를 비벼 놓으라고 말해놨는데 내가 안 가면 그 많은 시멘트를 어떡하겠어.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테니 걱정하지 마.”

아침에 연공할 때, ‘쑤이지샤저우(隨機下走)’ 동작을 하는데 쪼그려 앉을 수가 없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우선 그 집에 연락해 내가 갈 때까지 시멘트를 비비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문제가 생긴 건 분명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어느 집에 일하러 가든 똑같이 일을 잘 마치며 진상을 알렸고,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 집에서 진상도 알렸고, 대법이 아름다우며 대법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기적적이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대법에 먹칠을 할 수는 없다. 나는 사부님을 도와 정법해야 한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

가서 보니 집주인과 일을 돕는 넷째 형이 시멘트와 모래를 다 섞어두고 물만 부으면 되는 상태였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허리도 아프신데, 무리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하지 마세요. 나이도 벌써 64~65세나 되셨잖아요.” 내가 “시멘트를 벌써 다 비벼 놓으셨네요”라고 하자 그들은 “물은 아직 안 넣었어요”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물을 안 넣어도 안 돼요. 시멘트는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니 그 아까운 걸 다 버리게 되잖아요. 물 넣고 비비세요. 일단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돌아가서 쉴 테니까요.”

나는 타일을 붙이기 시작하며, 일을 하면서 안으로 찾았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요 이틀간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좋다,

저렇게 좋다며 칭찬했고, 나 스스로도 그 집에서 진상을 알리는 것이 무척 순조롭다고 느꼈다. 예전에는 늘 사부님께서 사람을 구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계속된 칭찬에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들뜬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나보고 좋다고 하지만, 나는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좋아진 것이 아닌가? 진상을 순조롭게 알린 것도 사부님께서 제자를 돕고 계신 것이다. 나는 지금 듣기 좋은 말을 즐기며 환희심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나 자신을 찾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환희심이 일어나는 바람에 마(魔)에게 이용당해 틈을 타 시련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이때 집주인 아내가 다가와서 말했다. "C 기사님,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집에 파스도 있고 진통제도 있으니 가져다 붙이고 약도 좀 드세요."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밖에 있던 두 사람도 방에 들어오더니 말했다. "일 참 빠르시네, 이쪽 벽을 벌써 반이나 붙였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몸 상할라." 나는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낫지 않았습니까?"

이번 시련을 통해 나는 사부님의 자비롭고 고심 어린 제도에 깊이 감사드렸고, 수련 중에는 매 순간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시련이 나타나 사부님께 번거로움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므로 나는 사부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사부님의 도움 아래 나는 안으로 자신을 찾아 이 고비를 넘겼고 대법에 먹칠을 하지 않았다. 이 가족은 구원받았고 집수리도 원만히 끝났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3. 갑작스레 닥친 시험

올해 6월 말 어느 날 밤, 밤 12시 정념(正念)을 발하고 막 누우려는데 아내가 말했다. "대문 쪽에 불빛이 있는데, 누가 왔는지 빨리 나가 봐요." 대문을 열어보니 A 수련생이 와 있었다. A는 방에 들어

오자마자 말했다. “B 수련생이 낮에 법공부 팀에서 법공부를 마친 후 C 수련생과 교류하던 중에, 둘 다 파출소로 끌려가서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파출소로 석방을 요구하러 갈 건데 같이 가주셨으면 해서요.” 나는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할까요?”라고 했고, A는 “조금 쉬었다가 가시죠”라고 대답했다.

나는 온돌방에 올라가 잠시 정념을 발하며, 어려움에 처한 제자를 도와달라고 사부님께 간절히 청했다.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대법제자는 하나의 정체(整體)임을 생각하며, 어떻게 가서 사람을 요구하고 정념으로 사악의 박해를 해체할 것인지만 생각했다. 새벽 3시에 연공 알람이 울렸고, 나와 A는 간단히 짐을 챙겨 출발했다.

그곳에 도착하니 6시 20분 전이었다. 먼저 사람을 요구하러 갈지, 아니면 먼저 정체에 맞춰 정념을 발할지를 두고 A와 나 사이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내가 말했다. “사부님께서 매 순간 우리 곁에서 돕고 계시고, 우리 농촌과 도시 수련생들도 다 알게 돼 다 함께 정념을 발해 사악을 해체하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일단 6시 정념을 발한 뒤에 사람을 요구하러 갑시다.” 우리는 먼저 정념을 발했다.

내가 방금 가부좌를 틀고 아직 수인(手印)도 맺지 않았는데, B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와 간단히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는 사부님의 보호 덕분에 한밤중에 정념으로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에게 쇼크 가상(假相)이 나타났다고 했다. 현재 C는 중환자실에 있고, 경찰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금을 조금 챙겨 서둘러 병문안을 갔다. 주치의가 출근한 후 가족들에게 C의 병세를 설명하며 말했다. “먼저 돈부터 내야 합

니다. 밀린 병원비를 납부해야 후속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돈을 내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안 내면 치료해 드릴 수 없으니 서둘러 보증금을 내세요." 가족이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사악의 오만한 기세가 꺾였고,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모든 책임을 지기 싫어 시간을 끌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했다. "병원에서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파출소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절대 파출소를 떠나지 않으며 사악의 기세를 꺾어야 합니다." C의 가족들도 사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우리에게 물었다. "누구 찾으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C의 가족이 "소장님을 만나러 왔소. 우리 아이가 지금 병원에서 생명이 위독합니다"라고 말했다. 경비원이 "소장님 안 계십니다"라고 하자, 내가 "어젯밤에 일어난 일인데 누군가 한 명은 나와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따졌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 보고했고, 경찰 몇 명이 우리 앞쪽으로 나왔는데 그중 한 명은 박해에 가담했던 경찰이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경찰관님, 이 청년이 대체 어느 법을 어겼습니까? 당신들이 함부로 집에 쳐들어가서 파출소로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따졌다. "너 C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나는 그의 말에 휘말리지 않고 단호히 말했다. "나는 그가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며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 경찰은 C가 무언가를 배포했다는 둥 떠들어대면서도 파룬궁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그 역시 파룬궁 박해와 관련해 어떤 법률 조항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찔렸던 것이다.

내가 말했다. “당신들은 그가 위법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법을 위반했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법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행위가 바로 범법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지, 함부로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때 이미 많은 사람이 업무를 보러 와 있었는데,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 내게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 겁나십니까? 지금 그 청년은 생명이 위독한데 이게 다 당신들이 저지른 짓 아닙니까. 그래놓고 아직도 병원에 돈을 입금하지 않다니요. 그의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신데 어서 소장님을 찾아서 해결하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사악한 수단으로 우리를 협박하려 들었다. “그놈은 범법을 저질렀어. 파룬궁 소책자를 돌렸다고.” 여기까지 질질 끌다가 비로소 그들은 ‘파룬궁’이라는 세 글자를 입 밖으로 꺼냈다. 사악이 얼마나 켕기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나는 시종일관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태도로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악에 응보가 따르는 것은 천리(天理)입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어서 소장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친척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사부님의 도움과 우리 지역 전체 수련생들의 강력한 정념의 위력 아래, 나는 두려운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 정념도 갈수록 강해져 경찰에게 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이때 그들의 사악한 기세가 사라지더니 바로 일을 처리하러 갔다. 잠시 후 경찰이 돌아와 말했다. “돈 보냈으니까 안심하고 돌아가.” 우리는 즉시 병원에 확인했지만 병원에서는 입금된 돈이 없다고 했

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악이 아직도 꼼수를 부리고 있구나.'

C의 가족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당신들이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길 떠나지 않을 거요. 우리집은 돈이 없으니 먼저 사람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요."

그 경찰은 또다시 구석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마 소장에게 걸었을 것이다. 몇 분 후, 그는 돌아와서 돈을 이미 보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치료비가 입금되자 의사도 치료를 시작했다. 떠나기 전, 나는 여전히 경찰에게 선(善)을 권했다.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몇몇 경찰은 아무 말도 못 한 채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수련의 길에서 갑작스레 닥친 이번 시험은 정말이지 무척 사악한 시련이었다. 만약 사부님의 보호와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런 시련을 헤쳐 나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제자를 돕고 계신 것이다. 나는 수련생들과 함께 정체의 정념에 맞추어 정사(正邪)간의 대결을 거쳤고 본 지역의 사악한 난귀(爛鬼)를 해체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C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사부님을 따라 정법 수련의 길을 걸어온 지 27년이 됐는데, 제자는 사부님의 위대함과 파룬따파의 위대함을 깊이 느끼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법 시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잘 수련하여, 더 많은 세상 사람이 진상을 깨닫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게 하려 한다. 나는 세 가지 일을 잘해내야만 원만(圓滿)하여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정념으로 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을 구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교류 원고 작성의 깨달음

1) 사부님의 일깨움

안일심이 있어 10여 년간 중국법회 원고모집에 투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수련생이 저희 집에 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중국 대법제자 법회 원고모집을 하는데 쓰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생이 돌아간 후 쓰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8월 14일 새벽, 저는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신(韓信)이 글자를 부쳐[郵字] 사람을 구하는데 당신은 글자를 부쳐 사람을 구하지 않나요?” 깨어난 후 저는 사부님께서 제게 일깨워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신’은 ‘서신[信函]’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글자를 부친다’는 것은 원고를 발송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부님께서 제게 쓰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제 곁에 계시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하고, 착실히 수련하는 과정의 매 걸음마다 사부님의 수고로움과 무량한 감당, 자비로운 안배와 가지(加持)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얼굴을 가득 적셨고, 반드시 교류 원고를 잘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무엇을 쓸 것인가?

중국공산당(중공)이 대법을 박해한 이래로 긴 세월 동안, 사부님의 세심한 안배, 인도, 일깨움 속에서 저는 줄곧 끊임없이 공안과 정법위 등 부서에 진상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대면해 진상을 알리는 것을 견지해 왔으며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렇게 견지하며 진상을 알리면 세 가지 큰 이로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그들이 진상을 안 이후에는 그들 배후의 중생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 자신도 악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둘째, 그들이 진상을 깨달은 후에는 본 지역 수련생들이 사람을 구하는 것을 박해하거나 교란하지 않으며 박해를 경감시킵니다. 셋째, 박해가 가벼워지고 환경이 자연스럽게 여유로워지면, 걸어 나오는 수련생이 많아지고 중생들에게 복이 생기며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 역시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량의 법공부로 정념이 가지돼, 저는 헛수고를 하지 않았고, 공안의 관련 책임자들이 진상을 일부 깨닫게 해 그들이 대법제자에게 선행을 베풀게 했습니다. 아래에 저는 수년간 현지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과 대면해 진상을 알린 일과, 시 위원회, 공안, 검찰, 법원, 교육국 등 부서(주로 공안국 관련 직원)에 진상 편지를 쓴 경험을 적어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2. 저와 현지 국보 경찰 사이의 이야기

1) 국보 대대장의 전화번호를 얻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대략 10년 전, 제가 대면해서 진상을 알릴 때,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손을 붙잡혀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파출소에서 저는 오전 내내 갇혀 있다가 집으로 풀려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저희 집에 있던 대법서적 일부를 국보부서 경찰이 가져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안국에 가서 국장에게 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

위는 국장이 없다고 했고, 국장 사무실은 출입을 금지해 저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안국 로비에 앉아 가부좌를 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일어나서 뒷마당으로 갔고, 뒷마당에서 위층을 향해 국보 대대장의 이름을 부르려 했습니다. 뒷마당에는 전부 주차 공간이었고 문이 있었으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자리에서서 위층을 향해 직접 국보 대대장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위층에서 선한 인상의 경찰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길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우리 둘은 걸었고 저는 걸으면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는 많은 질문을 했고, 저는 그에게 모두 명백히 알려주었으며, 그는 ‘위민(爲民)’이라는 가명으로 탈당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보 대대장이 저희 집으로 차를 몰고 가 제 아들에게(나중에 제게 말해줌) 말했습니다. “빨리 어머니를 모셔 와. 공안국 건물에서 소리치게 하지 말고. 내 전화번호를 줄 테니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부르면 바로 갈게.” 그렇게 우리는 이 국보 대대장의 전화번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번호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은 국보 대대장과 그 ‘위민’이라고 불리는 경찰이 저희 집에 왔는데, ‘위민’은 대대장이 문 앞에 간 틈을 타 제게 자기는 정말 박해하는 일을 하기 싫다면서 자신을 위해 부서를 바꿔줄 사람을 찾아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뒤에서 대법제자를 보호하는 것을 굳게 견지할 수 있다면 당신의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 이 일을 하기 싫다면, 대법 사부님께 당신의 직종을 바꿔 달라고 빌어보세요. 아주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그 경찰을 보지 못했습니다.

2) 신전문화가 선념을 일깨우다

이 전화번호가 생긴 후, 저는 거의 보름에 한 번씩 그에게 전화를 걸어 진상을 알리거나 그에게 퇴근 후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부르면 바로 왔습니다. 어떤 때는 전화로 할 말이 없어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는 아직 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은 저녁 5시가 넘었을 때, 제가 국보 대대장을 단골 장소로 불렀는데 경찰 세 명이 왔습니다. 저는 대대장에게 신전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휴대용 소형 녹음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중화민족 신전문화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젊은이들은 이 방면의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당신들 세 사람이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수확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잠시 듣더니 챙겨 넣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법 사부님께서 저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저는 서둘러 집에 가서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제가 떠나려 할 때 그들 세 명은 모두 제게 천천히 가라고, 사람이 많으니 안전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동시에 제게 손을 흔들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속으로도 다소 감동했습니다.

나중에 공안 내부에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들이 다 듣고 난 후 대대장이 그 소형 녹음기를 국장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한번은 국장이 회의할 때 그 녹음기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파룬궁이 나쁘다고들 하는데 여러분 이것 좀 들어보시오. 이 안에는 전부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오.” 그때 한 경찰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럼 위에서 정책으로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합니

까?” 국장이 말했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길 수 없소?” 이것이 바로 신전문화가 국장의 선념을 일깨워 준 것이었습니다.

3) 장쩌민 고소 이후

‘장쩌민 고소’의 큰 물결이 시작된 후, 우리 현지 수련생들은 협조를 잘했습니다. 많은 수련생이 정말 마음을 썼는데,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거나 전화를 걸어 장쩌민 고소를 도왔고, 어떤 이는 타이핑, 원고 정리, 발송을 돕고 택배 기사 연락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에 어느 수련생은 잠을 거의 자지 않아 한 달 만에 체중이 몇 kg이나 줄었고,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저는 매일 한 수련생과 함께 농촌으로 내려가 그곳 수련생들이 장쩌민 고소 원고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왕복 거리가 멀어 그곳 수련생들을 교란하지 않기 위해 점심때마다 밖에서 음식과 물을 조금 사서 작은 숲속에서 밥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마을로 들어가 수련생을 찾았습니다. 특히 일부 노년 수련생들은 고소장 원고를 정리하도록 도와준 후 부칠 줄을 몰라서 저는 그들을 모두 저희 집으로 오게 했고, 우체부를 저희 집으로 불러서 부치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고소장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동 노력 덕분에 본 지역(현급 시)의 90% 수련생들이 모두 장쩌민 고소에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일부 고소장이 현지로 반송됐고, 국보 대대장이 고소장을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즉시 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는데, 그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천상이 도래하면 당신이 어쩌겠습니까?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죄업을 지으면 하늘이 장부를 기록할 것이고 당신은 갚아야 합니다. 당신은 위로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 어쩌려고 합니까? 그러니 당신은 반드

시 한쪽 눈을 감고 모른 척하며 월급이나 받으면 됩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장쩌민만 폭로하십니다. 당신이 억지로 자기 몸에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자신의 생명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래에 파룬궁이 명예를 회복했을 때 만약 당신이 법정에 고발당한다면, 당신이 잘 처신해 대법제자를 보호했다면 제가 반드시 나서서 당신의 변호사가 되어 주겠어요. 어떻습니까? 게다가 당신이 잘 처신하면 하늘에도 모두 기록이 남아 당신에게 큰 공을 기록해줄 것입니다."

비록 현지 수련생들이 장쩌민 고소를 할 때 모두 실명과 자신의 전화번호를 사용했지만, 장쩌민 고소 이후 공안 파출소는 움직이지 않았고 대법제자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4) 한 자료점이 파괴된 후

2016년 어느 날, 농촌 수련생 집의 프린터, 컴퓨터 등을 파출소 경찰이 압수해 갔고, 수련생은 당시 몸을 피했습니다. 일이 터진 지 3~4년 후, 이 국보 대대장이 저를 찾아와서 그 이후로 자기는 수련생을 단 한 번도 추궁하지 않았고 그녀의 집에 간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대단합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요 며칠 내로 한 번 가봐야겠어요. 그녀를 보러." 그가 막 가려고 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일이 지나간 지 3~4년이나 됐으니 내려놓으세요.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한쪽 눈을 감고 모른 척하며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게다가 그 수련생은 겁이 많아서 박해가 심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때 그는 웃었는데 안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놓자 그는 떠났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그 수련생의 집에 가지 않았고 그 일을 추

궁하지도 않았으며 수련생은 무사히 집에 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 이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낱 아녀자로서 어떻게 젊은 남자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 참… 어쨌든 수련생이 박해받지 않으면 된 것이다.'

5) 정념으로 대법서적과 사부님 법상을 보호하다

저는 법공부 중에서 대법은 자비롭지만 위엄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국보 대대장은 결코 제 대법서적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만약 경찰 몇 명을 데리고 올 때면 이따금 공을 세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그가 제 '전법륜(轉法輪)' 책 한 권을 보더니 휙 집어 들고는 가져가서 새로운 '논어'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여기서 보라고, 금방 다 볼 것이라고 했으나 그는 기어이 가져가려 했습니다. 이때 그가 두 손으로 책의 위쪽 모서리를 쥐자 저는 책의 아래쪽 두 모서리를 쥐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손 놓으세요! 만약 오늘 감히 제 대법서적을 가져가신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대법서적을 지킬 것입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시죠." 그러자 그는 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또 한번은 젊은 경찰 한 명이 제가 방심한 틈을 타 사부님 법상(크기가 비교적 작은 것)을 손에 들고 두 손을 등 뒤로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단숨에 사부님 법상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사부님이시지 당신 사부님이 아니니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저는 두 손으로 법상을 받들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쩌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 정념으로 삼퇴 명단을 보호하다

어느 날, 저는 집에서 1000여 명의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막 베껴 쓰기를 마치고 아직 정리하기도 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수련생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경찰이어서 마음이 좀 긴장됐습니다. 저는 서둘러 안방으로 달려가 명단을 이불 밑으로 밀어 넣었는데 미처 다 덮기도 전에 경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보 대대장은 쓱 보더니 제게 뭘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감출 수 없어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퇴 명단을 베껴 쓰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게 줘봐.” 저는 말했습니다. “줄 수 없어요. 주면 찢어버릴 텐데요.” 그는 기어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베껴 쓴 공책 하나를 들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탈당 명단이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건 탈단 명단이고요.” 이때 그가 두 손으로 공책의 위쪽 두 모서리를 잡았고 저는 아래쪽 두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업을 지으면 괴롭지 않습니까? 보아하니 이 명단을 가져가려나 본데요. 손 놓으세요! 찢어지잖아요! 이 명단에 대법제자들의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과 고생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한 명을 탈퇴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이것은 또한 중생의 목숨입니다!” 그는 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명단은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게 지혜와 용기를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7) 정념으로 경찰의 악행을 제지하다

중공의 박해가 시작된 이래, 제 전화는 모두 일반인의 신분증으로 개통한 것이었습니다. 고향 마을 간부가 제 정보가 불완전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제 명의의 휴대폰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년 전, 저는 제 신분증으로 휴대폰 번호를 하나 개통했습니다. 나흘 후 밖에는 비가 내려 저는 진상을 알리러 나갈

수 없었기에, 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저희 집 법공부 팀 수련생들을 법공부하러 오라고 불렀습니다. 오전 8시, 수련생들이 도착했고 우리는 침대 위에 앉아 법공부를 시작했습니다.

9시가 채 되기도 전에 국보 대대장이 경찰 두 명을 이끌고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저의 첫 번째 일념은 전화가 도청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집에서 뭐해?” 저는 법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네 명인 것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보고 법공부하라고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집에서 배우고 연공하는 건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는 또 말했습니다. “당신 말고 나머지 세 명은 날 따라와.” 저는 침대 안쪽에서 폴짝 뛰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 감히 한 명이라도 데려갈 수 있는지 볼까요?! 법공부가 잘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잘못이라 하더라도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들을 오라고 했으니까요. 데려가려면 저를 데려가고, 저 세 사람은 누구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들은 웃더니 앉아서 말했습니다. “다들 산 채로 장기를 적출한다고 하는데, 우리 중에 장기 하나 모자란 사람이 있나?”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공안국은 그래도 선한 편이고 양심이 좀 있죠. 만약 당신들이 정말 대법제자 한 명을 박해해 죽인다면 생각해보세요. 당신들 공안들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천리는 공평한 법입니다.”

3. 진상 편지를 써서 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을 구하다

1) 편지를 쓸 때 마음속에 목표를 두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반드시 공안, 검찰, 법원 등 부서의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 사부님의 질서 있는 안배라고 생각합니다. 막 진상 편지를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 마침 전염병 사태가 시작돼 집에 봉쇄됐습니다. 저는 오전에 법공부를 하고

오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근 두 달 가까이 쓰고 나서야 이 일을 완성했습니다.

배움이 짧아 가끔 글을 쓸 줄 몰랐지만, 사부님의 인도와 일깨움 아래 마침내 다 써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장쩌민은 법률을 '제조' 할 권한이 없다고 썼을 때, 머릿속에서 '입법, 입법이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사부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임을 깨닫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저는 각종 진상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발해만 조난기'(역주: 발해만 태풍 속에서 선원이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치자 풍랑이 잦아들어 배가 무사했다는 체험담) 한 장을 첨부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 마음속에 목표를 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편지를 읽는 입장에 서서 대법의 자비와 위엄을 써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수련생은 제가 쓴 편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편지는 한마디도 더 쓰지 않았고 덜 쓰지도 않았네요." 저는 사부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총 20통의 편지를 썼고 한 통당 10장씩이었는데 전부 제가 직접 썼습니다. 현지 시 위원회 서기, 교육국장, 공안국장, 정법위 서기, 국보 정(正) 및 부(副) 대대장에게 각각 한 통씩 보냈고 각 향진 파출소 소장들에게 각각 한 통씩 보냈습니다.

2) 진상 편지를 우송하는 과정에서의 풍파

진상 편지를 다 쓴 후 저는 발송하러 갔습니다. 먼저 총우체국에서 부치면서 우체부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그는 저희를 매우 동정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10여 통을 부치고 속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두 통을 남겨 작은 우체국에 가서 부쳤습니다. 그런데 작은 우체국에서 편지를 부칠 때 제가 먼저 우체부에게 진상을 알리자, 그 사람은 우편물을 만지면서 듣기 거북한 말을 했고 밖으로 나가 차 번호를 확

인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불안해졌습니다. 수속은 다 마쳤고 집에 돌아와 문 앞에 막 당도했을 때 경찰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국보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씨, 나랑 같이 좀 가야겠어.” 저는 일이 터진 것을 알았고 말했습니다. “가는 건 좋지만 점심때는 돌아와서 밥을 지어야 합니다.” 그들은 경찰차로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대대장을 보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저희 집을 가택수색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저를 심문하는 경찰은 제게 한가운데에 있는 죄수용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찌 죄수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는 작은 의자를 하나 가져와 제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손에 그 편지 두 통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편지 당신이 부친 거야? 누가 부치라고 했어? 이 편지 써서 뭐 하려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부쳤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소중한 목숨을 해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당신들에게 전염병 재난을 어떻게 넘길 수 있는지 알려준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이 편지 한 통 베끼는 데 며칠이나 걸렸어? 글씨도 너무 반듯하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구원받게 하려면 우선 당신들을 존중해야 하고, 당신들이 읽고 싶어야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처음 부친 그 10여 통의 편지가 제발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 일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대대장이 왔고 차로 저를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5~6일 후, 대대장이 아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또 진상 편지 보냈더라?” 아들은 그 10여 통의 편지가 전부 도착했음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한꺼번에 부친 겁니다.” 그렇게 일은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3) 정념으로 대법서적을 되찾다

이 이야기는 앞의 내용과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진상 편지를 부친 일로 파출소에 갇혀 있을 때 대대장이 가택수색을 하려고 출근했던 아들을 집으로 불러 문을 열게 했습니다. 제 침대 머리맡에 큰 종이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대법서적 수십 권과 100여 장의 '인연 있는 분께 드리는 편지' 전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단순해 편지를 부치는 데 위험이 따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갈 때 정리하지 않았고, 결국 대대장 일행이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후회돼 소리 내어 통곡했고 그날 밥도 먹지 못하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대대장 일행이 출근하기도 전에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찾았고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전부 제 잘못입니다. 제 책 상자가 눈앞에 떡하니 놓여 있었으니 당신들 다섯 명이 보고 안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안 가져가면 당신 입장도 곤란했겠죠, 그렇죠? 제가 오늘 전화한 것은 제 책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책을 돌려준다면 당신의 공덕은 무량할 것이고 하늘이 당신에게 큰 공을 기록해줄 것입니다. 만약 제게 줄 수 없다면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지만 국장에게 전해주세요. 내일부터 저는 공안국에 가서 머물 것이며, 책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책이 없으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법도(大法徒)로서 대법서적조차 보호하지 못하면서 저를 자비로운 제도로 이끌어 주신 사부님을 어떻게 뵐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몹시 슬퍼 울면서 전화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또 말했습니다. "스님이 염불하는데 경전이 다 없어졌다면 무슨 경전을 읽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밥 먹을 생각도 없고 잠도 안 오니 죽고 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허튼짓 하지 마,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 테니. 아들

한테 집에서 기다리라고 해.” 그는 제게 전화를 아들에게 바꿔주라고 해 몇 마디 나눴습니다.

오후 3시, 대대장이 집 아래층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기뻐하며 큰 책 상자를 안고 돌아왔고 100여 장의 진상 전단지도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는 했니?”라고 물었고 아들은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뻐서 웃었는데 정말이지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님께 달렸다”(전법륜)입니다.

4) 공안국장의 선행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인쇄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여러 시를 거쳐 현지 수련생의 손에 들어왔다가 다시 제 손에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제 고향 이웃 마을의 어떤 사람이 외지 어느 시의 공안국장으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시로 단번에 10여 명의 대법제자가 붙잡혔고 그중 몇 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매우 악랄하게 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련생이 저를 지명해 그 공안국장에게 진상을 알리라고 한 이상 필시 사부님의 지시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썼던 진상 편지 초고를 그대로 다시 베껴 써서 그 ○○ 시 공안국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약 열흘 후 국보 대대장이 저희 집 문을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까부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시까지 가서 까불다니.” 저는 말했습니다. “전 간 적 없어요. 그저 진상 편지 한 통을 보냈을 뿐이죠. ○○ 국장은 우리 고향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악업을 짓는 걸 빤히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이 어제 5~6명을 데리고 당신 잡으러 왔는데 우리 국장님이 막아주신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국장님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당신에게도 고맙고요. 신의 눈은 번개와 같으니 하늘이 또 당신들에게 큰 공 하나를 기록해 줄 겁니다!”

맺음말

저는 수련인으로서 수련인의 기준에 따라,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에 부합하고 사부님의 요구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개인의 집착을 내려놓고 생사를 내려놓으며 중생을 위해 생각한다면, 대법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력과 식견을 주며 성공할 용기와 힘을 줄 것이고, 사부님께서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 생에 제가 대법 사부님의 제자, 위대한 대법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저는 반드시 계속 노력해 법공부를 잘하고 저 자신을 잘 수련하며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중생을 많이 구해 사부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들이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하며, 서로 격려해준 것에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일하면서 마음을 닦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8월 7일, 명혜망을 열고 제23회 중국법회 원고모집 공지를 보니 마음속으로 한바탕 기뻤습니다. 오늘은 입추 절기이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에 저도 올 한 해 동안의 수련 결실을 몇 개 골라 위대하신 사부님께 바치고 수련생과 나누려 합니다.

에어프라이어

저는 비교적 원만한 사람이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말하게 둡니다. 가끔 다른 사람에게 격렬한 말로 비판받아도 말대꾸하지 않고, 심지어 돌이켜보며 다른 사람이 말한 문제 중에 자신이 제고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

를 탓할 때면 가끔 넘기지 못할 때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6시 반부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해 아들이 좋아하는 감자 샐러드와 각종 소스에 찍어 먹는 채소 등을 만들었고, 아내는 에어프라이어로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8시쯤 되어서야 사용한 식기, 주방 도구 설거지를 마치며 약 한 시간 반 동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때 서둘러 시간을 내서 명혜망에 접속해 본 다음 법공부 팀에 가려 했습니다.

막 자리에 앉았는데, 아내가 주방에서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에어프라이어는 왜 안 치웠어요?!" 이 말을 듣자 머릿속에 순식간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한 시간 반이나 바빴고 에어프라이어 하나 남은 건 당신이 좀 치우면 되잖아…' 이 생각이 드러나기 미처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아닌가?' 저는 즉시 평온을 되찾았고, 마음속에는 고비를 넘긴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저쪽에서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사소한 일로 아내가 저를 탓할 때 제가 몇 마디 변명하자 아내는 그야말로 폭발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저에게 반드시 잘못을 인정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끝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입으로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제야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후 저 자신을 반성해보니 정말 제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잘못이 없었지만, 제가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한 것이 바로 대법 수련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드디어 갈등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고비를 한 번 넘겼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그 후 한 번은, 아내가 저에게 수납장 위 물건을 정리하라고 했습

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 수납장 위 물건을 다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저는 즉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직접 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시키고는 이것저것 트집이네.” 아내는 단번에 화를 내며 의자를 밟고 올라가 물건을 정리하면서 잔소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선 작업을 한다면서 물건 하나 제대로 놓을 줄도 모르고…”

아내가 저를 질책할 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또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켜내야 하고 다시는 말대꾸하면 안 돼.’ 결과적으로 아내는 또 순식간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보아하니 ‘전쟁’이 빨리 끝나는지 아닌지는 제가 제때 안으로 찾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달간 우리는 매우 화목했고, 저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더는 고비를 겪지 않게 됐습니다. 수련이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제고돼 올라가는 것입니다.

불안감도 일종의 집착이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겪자 서둘러 제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찾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불안하면 집에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 안으로 찾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은 ‘그 집착심이 만들어낸 것인가?’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분명하게 생각나지 않아 일단 발을 씻으러 갔습니다.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또 집착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불안감’이었습니다. 순간 다른 공간에서 제 심장 부위에 구멍이 하나 뚫리더니 어떤 물질이 심장에서 뿜어져

나왔고, 마음이 불안하던 상태가 즉시 사라졌습니다. 뿜어져 나온 물질이 바로 불안감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이어 이번에 불안감이 생긴 원인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요 이틀 동안 수련생이 저에게 대법을 실증하는 두 가지 일을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아주 힘들게 하면서도 일의 진도를 지연시킬까 봐 두려워서 불안한 상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뒤이어 머릿속에서 더 오래전 불안감이 생겼던 원인을 저절로 알게 됐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담당했던 업무 중 하나는 현장의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문제는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생산이 중단돼 회사가 고객에게 제때 납품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마치 소방대장처럼 앞장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많은 경우 불안감 속에 있었습니다.

이 불안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의식했고, 더는 깨닫지 못하면 아마 신체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불안감을 해결한 방식은 가히 신기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때 안으로 찾는 수련 과정이 있었을 뿐인데, 뒤이어 일어난 모든 일은 그야말로 돈오(頓悟) 같아서 전혀 제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 (전법륜)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수련하려는 소원이 있어 마음을 써서 닦았을 뿐입니다.

이날의 경험을 통해 불안감도 일종의 집착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은 ‘안으로 찾다’라는 이 법보(法寶)에 의해 구멍이 뚫렸고, 불안감이라는 물질이 그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생겨 불안해질 때, 그것이 불안감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 구멍을 통해 불안감이라는 물질이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최소 한 달여가 지난 후

에야 비로소 이 구멍을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불안감이라는 이 집착은 이렇게 한 번 한 번 닦여나갔습니다.

협조 속에서 독선을 닦아버리다

몇 년 전, 무슨 일로 어떤 수련생과 격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수련생은 저를 몹시 질책하며 그중 제가 독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 자신이 무척 억울하다고 느꼈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련생의 말을 반성해보니, 그 일에서 제가 독선적이었던 흔적은 극히 미미했지만, 다른 일에 있어서는 확실히 저에게 독선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서둘러 편지를 보내 수련생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착심은 단번에 분명히 인식하고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A 수련생과의 갈등 속에서 이 집착심은 저를 1년간 괴롭혔습니다.

명혜망에 수련생들에게 자주 착실한 수련[實修]을 건의하는 교류 글이 발표된 적이 있어서, 주변 수련생들이 착실히 수련하는지에 매우 신경 썼고 늘 수련생들에게 착실한 수련을 중시하라고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A와 함께 대법을 실증하는 항목을 한 적이 있었는데, A는 책임자였고 저는 협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제 잠재의식 속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A가 일을 함에 있어 법에 있지 않다면 우리 항목은 대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는 성과에 도달하기 매우 어려워. 게다가 중국이라는 이 환경에서 일을 할 때 법에서 벗어나면 위험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A의 상태를 매우 엄격하게 지켜보았는데, 자세히 분석해보면 저에게는 마땅히 이런 이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1년간,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A에게 저의 견해와 건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처음 건의만 A가 간접적인 피드백으로 받아들였을 뿐, 그 이후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제가 보

낸 편지가 바다에 돌을 던진 듯 아무런 회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건의를 보낸 후 A가 항목에서 저에게 배분해 주는 일이 아주 적어졌는데, 저는 그녀가 화가 났다고 느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상태에 처하게 됐고, 뼈를 깎는 듯한 안으로 찾기 속에서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법보다, 사부님보다 수련생을 더 잘 제고하게 하고 수련생을 더 잘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수련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지적하는 상태를 버려야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교류는 가능하지만 집착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수련생의 집착에 집착하는 것도 집착이니 역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항목에 있어서 A를 최대한으로 협조해야 하며, 수련생의 상태가 제 인식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음은 아래 서술한 한 토막의 경험 속에서 수련해 낸 것입니다.

오래전, 직장 동료인 B 수련생(당시 신수련생)이 저에게 자기가 쓴 이야기 20부를 인쇄해달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할 때 사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니 방식에서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 인쇄해 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는 협조해 주기를 고집스레 요구했고 꽤 강압적이었으며, 이 이야기가 사람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서 기어코 인쇄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마침 수련생 간에 잘 협조해야 한다는 법을 공부하고 있었기에 꽤 망설이다가 결국 그에게 10부를 인쇄해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B는 기뻐하며 저에게 동료 레이(가명) 씨가 자기가 쓴 이야기를 보고 삼퇴를 승낙했고 게다가 실명으로 탈퇴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레이 씨는 예전에는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는

데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가 레이 씨를 봤을 때, 그에게 펼쳐진 광경은 레이 씨의 다른 공간 신체가 정화돼 마치 백옥같이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B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B가 말한 레이 씨는 예전에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고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B가 각자 그에게 약 일곱 번이나 진상을 알리며 삼퇴를 권했지만 그는 승낙하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이번에 그가 이토록 흔쾌히 받아들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B와 협조한 이번 일에 깊은 함의가 포함돼 있다고 느꼈지만, 그때는 명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돌이켜보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다른 층차와 경지에 처해 있다. 항목 협조 중, 방향만 맞다면 자아를 내려놓고 무조건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상태이며, 그래야만 기적을 낳을 수 있다.'

B는 당시 신수련생이었고 그의 그 방식은 그의 당시 상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협조할 때 그는 마치 그 항목의 책임자 같았습니다. 그가 꼭 저보다 수련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자아를 고집하지 않고 그와 협조하니 곧 법에 부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자 앞으로 A나 다른 수련생들과 잘 협조할 수 있어 갈등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하면서 마음을 닦다

최근에 제 프린터가 고장 나 사람을 구하는 자료를 인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안으로 찾아보고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배포할 때의 마음이 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아마 처음 스스로 진상 자료를 인쇄하고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주 진지해서 가지런히 접지 못해 사람을 구하

는 효과에 영향을 줄까 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자료를 한쪽에 놓을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놓으며 마치 자기 아이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겼고 던지는 동작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마음속으로 자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중생을 잘 구해야 해!' 가끔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일종의 정념의 장이 저를 감싸주어 무척 신성했습니다.

자료를 배포할 때, 특히 각 동 출입문이 모두 전자 도어록으로 되어 있어 들어가기 매우 힘든 그런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제가 입구에 도착하면 막 나오는 사람이 있거나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서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어떤 문은 며칠 전만 해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날은 당기기만 하면 열렸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감사드렸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동에 있는 중생이 바로 오늘 사부님께서 제게 구하라고 안배하신 중생이구나. 사부님의 안배에 따라 중생을 구하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야.' 그래서 전자 도어록이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 자료를 배포할 때면 모든 것이 안배돼 있음을 더욱 느낄 수 있었고 더욱 신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업무가 바빠지며 자료를 많이 만들게 되자, 지금은 이미 무뎌져 그때의 마음가짐이 없어졌습니다. 정성을 들이던 그 상태를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와 협조해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이었을 때, 제가 A에게 건의를 하나 하자 A는 당시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다음 날 A가 먼저 교류해 왔는데 그녀는 안으로 찾아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찾았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저도 무척 기뻤고 그녀는 정말 제고했습니다. 그녀가 쏘아붙일 때 마음속으로는 그녀가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투덜거렸던 것입니다.

이후 여전히 이 사건에 관해 진상 편지 봉투를 쓸 때, A는 제게 그 위에 몇 글자를 보충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글씨를 쓸 때 갑자기 두려

운 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관리들이 편지를 본 후 필체를 대조해 조사할까 봐 두려웠고, 심지어 이 편지들이 그들에게 접수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한 덩어리의 두려운 물질이 저를 덮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당시 이를 알아차렸고 즉시 정념을 발했습니다. '나는 이 두려운 물질을 원하지 않아. 나는 이 관리들이 편지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념을 내게 할 거야!' 이 일념은 매우 확고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이 일에 대해 정념을 발해, 이 편지들을 보는 사람들을 구하도록 가지(加持)했습니다. 정념을 발할 때 전신의 기기(氣機)가 맹렬히 회전했고 강력한 에너지장 속에 휩싸였습니다. 관념을 바꿔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심성이 제고된 후에야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수련생들이 발정념(發正念)에 전력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다음 날, 납치돼 있던 수련생이 밤새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공간의 사악이 제거됐고 관리들이 편지를 본 후 올바른 선택을 내렸기에 이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번 협조 속에서 저와 A는 모두 심성이 제고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동시에 마음 닦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사람을 구하는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많은 인식이 보완되고 승화됐으며, 교류 글을 쓰는 것 역시 한 차례 마음을 닦고 제고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1년간의 수련 성과를 향후 수련의 길을 잘 걷기 위한 주춧돌로 삼으려 합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친 후 겪은 수련 과정

글/ 중국 쓰촨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6년에 다행히 법을 얻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여성 대법제자이며 올해 70여 세입니다. 30년 수련 중에 각종 병업 고비와 시련을 겪었지만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내내 보호해주신 덕분에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오토바이에 치여 다친 고비는 이전의 고비들보다 돌파하기가 더 어렵고 길었습니다.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 기회를 빌려 이 수련 과정의 체득을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1. 갑작스럽게 겪은 교통사고

2025년 10월 8일 저녁 정념을 발하고 남편과 산책하러 나갔습니다(남편은 몸에 여러 만성질환이 있어 매일 함께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길을 건널 때 남편은 이미 맞은편 길가로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멀리 교차로에 빨간불이 켜지고 차들이 멈춘 것을 보고 재빨리 길을 건넜습니다. 거의 다 건너갈 즈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멀리 튕겨 나갔다가 다시 도로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다급히 다가와 저를 부축해 길가로 옮겼습니다. 날이 이미 약간 어두워졌는데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사람도 차와 함께 넘어진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제가 넘어진 곳에서 4~5미터쯤 떨어진 오른쪽에서 그들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어떠냐고 물으며 그들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 성가시게 하지 말아요, 그들도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급히 집에 가고 싶었겠죠. 날이 어두워서 못 봤을 테고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니 그냥 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인연 있는 사람과 이렇게 만났는데 대법 진상을 알리지 못해 정말 아쉽다. 두 사람 모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해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남편과 말할 때 입술 왼쪽이 부어서 발음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어서 보니 왼쪽 무릎이 이상했고 오른쪽 무릎에선 피가 나 바짓가랑이가 약간 젖어 있었으며 양손은 말을 듣지 않고 극심하게 아팠습니다. 넘어진 그 순간부터 계속 마음속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진심으로 외우며 사부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편이 제 이상을 눈치채지 못하게 공원 방향으로 계속 걸으며 산책에 동행하려 했습니다. 잠시 후 왼쪽 무릎은 정상을 회복했고 오른쪽 무릎도 피가 멎어 바지가 젖는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양손목 등이 뼛속까지 아프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어지럼증이 동반됐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원 가지 말고 집에 가자."

교차로에 도착해 가로등이 밝아지자 남편은 제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심하게 다친 것을 직감해 부축하려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길 잘 보고 걸어요, 저는 환자가 아니니까 부축하지 말아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대법제자다, 이건 고비를 넘는 중이고 내겐 사부님이 계신다.' 가는 내내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우며 사부님께서 제자를 가지(加持)해주시길, 집에 가야 한다고 청했습니다. 도중에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사부님의 보호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 시련 속에서 안으로 찾으며 매사에 남을 먼저 배려하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처음에는 양 손목이 너무 아파서 머리카락과 셔츠 등 부분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속으로 계속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우며 사부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금 진정된 후 옷을 갈아입고 씻으려 했는데 그제야 양손으로 옷장을 열거나 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도 컵을 들 수 없었고 심지어 휴지 한 장도 뽑을 수 없었습니다.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으려 해도 재생기 스위치를 켤 수 없었습니다. 연공하려 해도 동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시련은 수련과 생활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가져왔으며 동시에 저를 일깨웠습니다. 수련에 빈틈이 생겼으니 반드시 진지하게 안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제게 많은 집착심이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원망심, 고생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안일함을 추구하는 마음,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 물건을 아끼지 않는 마음(남편이 마트에서 할인하는 과일과 채소를 자주 샀는데 저는 상한 것을 발견하면 조금 나은 것을 골라내지도 않고 버리면서 남편을 탓했습니다) 등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남편이 휴대폰과 TV만 보고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심 때문에 구세력에게 박해받아 이렇게 큰 난관을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부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부님께 다시 한번 구해주신 것에 무한히 감사드렸으며 평소 대법의 '진선인(眞·善·忍)'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때로는 법공부 시간마저 집안일로 빼앗겼습니다. 매일 오전 남편이 물리치료를 받을 때 저는 장을 보며[그때 진상 지폐를 사용해 사람을 구하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며 수련생과 만나는 등 일도 함] 제때 점심을 차려야 했습니다. 오후에 남편이 낮잠

을 자고 일어나 휴대폰을 보거나 들을 때 저는 법공부를 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가끔 집안일이 많으면 법공부 시간을 빼앗겨 밤에 하려 했습니다).

밤에 남편과 산책을 좀 오래 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주방을 정리하고 청소를 마친 뒤 법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책만 들어도 졸음이 쏟아져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정념을 발하거나 정공을 연공할 때도 저도 모르게 잠들었습니다. 이런 올바르지 않은 상태가 고쳐지지 않아 남편이 빨래 걷기, 청소하기, 걸레질 등 집안일을 거들어주어 제가 기운과 시간을 내서 법공부하기를 바랐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에서 상전 노릇을 하고 자신은 가정부 같다고 느껴져 불공평하게 느껴졌고 원망심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련은 당신의 이 마음을 수련해야 하는데, 心性(씬씽)을 닦는다고 한다.”(전법륜)

저는 사부님의 법에 따라 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속으로 사부님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부님,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원망심을 원치 않고 고생하고 힘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가지해주십시오. 제 올바르지 않은 상태를 바로잡고 진정하게 수련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저는 남편에 대한 원망심을 사부님께서 떼어내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남편은 선량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검소하게 생활해 낭비가 없고 제 수련을 반대하지 않으며 단지 집안일을 하는 습관이 없을 뿐입니다. 그의 모습은 제 수련 제고를 위해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므로 저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안으로 찾으며 제 마음을 닦자 마음이 평온해졌고 양손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다 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으니 안심하고 자요.” 남편은 TV를 끄고 침실로 돌아가 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념을 발했는데 가부좌를 틀거나 손자세를 할 수 없어 몸을 바르게 세우고 했습니다. 먼저 다른 공간에서 제가 상처 입힌 적이 있는 생명들과 소통하며 사부님의 선해(善解)에 관한 법을 외우고 그들이 선해를 선택해 아름다운 미래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강력한 정념을 발했습니다. 다른 공간의 구세력, 흑수(黑手), 난귀(爛鬼)가 제 수련의 빈틈을 이용해 제 몸을 박해하려는 모든 사악한 안배를 제거했습니다. ‘나는 대법제자이므로 사부님의 안배만 따를 뿐 다른 어떤 안배도 원치 않는다. 수련의 빈틈은 법 속에서 바로잡을 것이니 누구도 날 시험하거나 박해할 자격이 없으며 누구든 이를 행하면 범죄를 짓는 것이다.’

이어서 동공(動功)을 연마했는데 손으로 할 수 없는 동작은 의념으로 했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습니다. 손으로 재생기를 켤 수 없고 대법서적을 들 수 없어 사부님의 법을 외웠습니다. 정공을 연마할 때 가부좌를 틀 수 없어 그냥 앉아서 했습니다. 정말 졸리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양손을 침대에 평평하게 놓고 머리를 파묻고 잠시 잤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번갈아 가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부어올랐던 입술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양손을 가슴 앞에 마주 안고 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남편이 일어난 후 씻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는 집에서 아침을 먹지 않고 제게 함께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자고 했으며 길에서 아침을 사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아요, 단지 일을 못 할 뿐이죠. 며칠만 시간을 줘요, 급하게 병원 가지

말고요. 병원은 보통 사람이 가는 곳이고 저는 수련인이니 사부님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이나 시간을 줘? 몇 시간도 못 줘! 이미 늦었어, 어젯밤에 당장 병원에 갔어야지 치고 간 놈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됐어. 안 가면 나도 당신 신경 안 쓸 거야. 지금 일상생활도 안 되는데 가서 검사라도 받고 어디 다쳤는지 확인하는 건 괜찮잖아?”

평소 집안일은 모두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이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고집하면 그의 호의를 상하게 할 수 있었고 딸 등 다른 가족이 알게 돼도 그의 주장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친척과 친구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련인의 마음과 일 처리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련하지 않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구하는 데 유리하도록, 제가 병원 검사를 거부해 그들이 대법에 오해를 갖지 않게 하려고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후 정형외과 의사는 양손 모두 분쇄골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아무 약도 먹지 않겠다고 고집했기에 의사는 뼈를 맞추고 깁스를 해준 뒤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고비를 넘으며 사부님과 법을 믿고 가상에 교란받지 않다

양손에 깁스를 한 후 상처 부위가 부딪히지 않게 보호할 수는 있었지만 연공과 발정념 손자세를 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깁스가 꽤 무거워 포륜(抱輪)과 충관(沖灌)을 할 때 왼쪽 팔이 시큰거리고 아파서 오른손의 도움을 받아야만 잠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 손가락도 건드릴 수 없었고 심지어 책장을 넘기기도 어려워 전적으로 오른쪽 팔에 힘을 주고 깁스한 오른손 등으로 왼

쪽 팔을 받쳐야 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매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사부님의 법인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고,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다”(전법륜)와 홍음(洪吟) 중의 ‘마음고생’을 외웠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연공한다는 것을 알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양손 다 분쇄골절인데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푹 쉬셔야죠.” 이것은 저에 대한 관심이자 호의였습니다.

저는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었습니다. 눈앞의 이 모든 것은 가상이고 다른 공간의 제 손은 다치지 않았으며 사부님께서 우리가 연공할 때 다른 공간의 신체가 작용을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명혜망에도 수많은 수련생이 정념으로 고비를 돌파한 교류 문장이 실렸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제자이니 마땅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겪은 교통사고는 제 수련의 빈틈이기도 하고 과거에 진 빚 때문에 목숨을 빼앗으러 온 요소도 있을 텐데 사부님께서 제자를 위해 대부분을 감당해주시고 아주 조금만 남아 저 스스로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매일 평소처럼 연공하고 정념을 발하며 법공부를 했습니다. 2주 후 정형외과 의사의 요구에 따라 재진을 갔는데 당직 의사(지난번 의사와 다른 사람)가 엑스레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깁스가 너무 짧으니 좀 길게 해야겠네요(팔꿈치 움직임에 지장이 없는 곳까지).” 깁스를 교체하고 다시 2주가 지났는데 양손 손가락이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반듯이 올려놓아야만 떨리지 않았고 여전히 손등과 손바닥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재진을 가서 촬영한 후 의사(또 다른 의사)는 양쪽 손목뼈가 심하게 어긋난 것(약 2cm)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사진을 확인한 의

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왜 제때 수술을 안 했습니까?” 제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습니다.” 의사는 제 팔뚝과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아 자칫하면 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왔을 때보다 수술 난도가 훨씬 높아졌으니 일단 다시 깁스하고 지켜보시죠.” 남편이 수술 비용을 물어보니 한 손당 2만여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제 양손이 불구가 돼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될까 봐 초조해하고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2025년 11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남편은 몹시 진지하게 저와 상의했습니다. “2만 위안쯤 준비해서 당신 오른손을 수술하자. 양손 다 불구 돼서 생활도 못하면 어떡해.” 저는 사부님을 굳게 믿고 대법을 굳게 믿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저와 맞지 않으며 저는 대법제자이고 사부님께서 돌봐주시니 제 손은 절대 불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남편의 감당 능력을 고려해 병원에 가기로 동의하면서 길을 돌아갔고 심성이 대법 수련자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말 너무 믿지 말아요. 저는 예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투성이였고 매일 한약과 양약을 끊지 못해 돈도 많이 썼지만 어떤 의사나 병원도 제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사부님께서 제 모든 병을 제거해주셔서 병 없이 몸이 가벼워졌잖아요. 30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간 거 제가 직접 겪었고 당신이 두 눈으로 본 사실이잖아요. 이번엔 당신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시키는 대로 병원에 간 거예요. 한 달이 넘도록 돈 쓰고 신경만 썼는데 결과는 양손이 이렇게 돼서 가기 전 상태만도 못하잖아요. 저는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을 테니 제 손이 불구가 될 거란 걱정은 말아요. 의사가 한 말은 제게 소용없어요, 저에겐 사부님이

계시잖아요. 돈 좀 들여서 가사도우미를 불러 집안 청소 좀 시켜요. 그동안 당신 스스로 병원 가고 약 챙길 틈도 없이(남편은 신장 등 만성질환으로 매월 하순 정기적으로 재진을 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집안일 다 떠맡고 저까지 돌보느라 충분히 힘들었으니 청소는 돈 주고 사람 시켜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다시는 제게 수술하러 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법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고 양손으로 책 한 장을 넘기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가 올바르지 않고 계속 이어져선 안 되며 이는 사부님의 안배가 아니므로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부님께서 거대한 감당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연장해주신 것은 자신을 잘 수련하고 사람을 많이 구하라는 것인데 저는 고비에 갇혀 벗어나지 못했고 수련생들과 약속한 시간도 번번이 어겼습니다. 저는 몇몇 노년 수련생들과 전화 연락 없이 미리 시간과 장소를 정했는데 저희 집에서 꽤 멀었습니다.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일도 할 수 없고 연공과 발정념 손자세도 할 수 없으며 생활도 혼자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구세력의 박해이므로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제자의 뼈를 조리해주셔서 난관을 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두 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고 동시에 책상 위에 반듯이 놓인 두 손이 마치 고정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 안쪽이 콕콕 찌르듯 은근히 아프고 부어오르는 느낌이었으나 견딜 만했지만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의 어긋난 손목뼈를 맞춰주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눈물은 더욱 멈출 수 없었고 이는 사부님께 한없이 감사드리는 제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덧 두 시간 넘게 지났고 남편이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밥 먹

으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간신히 무거운 두 손을 옮겨 팔과 위팔로 힘을 주어 두 손을 서로 감싸 안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두 손을 식탁 위에 반듯이 올려놓았습니다. 평소에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억지로 밥을 먹었는데 이때는 왼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의아해하자 저는 말했습니다. “오후 3시 넘어서부터 지금까지 손이 굳은 것 같아요, 사부님께서 제 어긋난 뼈를 맞춰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저더러 정신병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차분히 묵묵히 제게 밥과 반찬을 먹여 주었고 다 먹은 뒤에는 침실 책상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녁 6시 넘어 정념을 발하고 나니 양손이 마치 결박이 풀린 것처럼 단번에 홀가분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노트북을 열었고(다친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명혜망에 접속했습니다. 사부님의 사진을 뵈니 마치 오래 헤어졌던 혈육을 만난 듯 행복했습니다.

4. 시련을 겪은 후 심성이 높아지고 수련 환경이 개선되다

사부님께서 제 손뼈를 맞춰주신 후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명혜망에 접속하고 재생기를 켜고 끌 수 있었으며 연공 동작도 점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념을 발할 때 팔뚝은 평행을 이뤘으나 아직 손바닥이 세워지지 않았고 허스(佘十)도 마찬가지여서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스스로 밥 먹고 양치질하는 것부터 점차 제 일을 스스로 하게 돼 지금은 완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됐고 남편을 자질구레한 일에서 서서히 해방해 주었습니다. 이번 시련을 거치며 사부님께서 거대한 감당으로 우리에게 연장해주신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고 매일 법공부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심성이 높아졌고 남편에 대한 원망심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볶거나 삶는 요리를 한 후 하루 종일 냄비를 씻지 않았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묵묵히 씻었습니다. 과거에 거의 이런 일을 안 해봤으니 밥과 반찬을 제대로 해내는 것만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채소를 볶을 때 마른고추를 넣고 돼지기름을 많이 쓰는 것을 좋아해 저는 좀 적게 넣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고치지 못하면 저는 그저 웃어넘겼고 그가 좋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먹기 힘들어 일부를 끓는 물에 씻어서 먹었습니다.

제 심성이 높아지고 원망심이 없어지자 남편의 모습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장을 봐오면 못 본 척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굴었는데 지금은 정리를 도와줍니다. 과거에는 제가 아침에 정념을 발하고 나면 바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남편은 일어나 씻은 뒤 식사만 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정념을 발하고 나오면 남편이 벌써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여 저는 그저 식사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밖에서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빨래를 걷으라고 하면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 하지만 지금은 비가 오면 알아서 빨래를 잘 걷어놓습니다.

수련 면에서도 그는 묵묵히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정공을 연공할 때 가부좌를 틀지 못하면 그가 다리를 올려 가부좌를 틀게 도와주었습니다. 재생기를 켜고 끄지도 못하고 충전도 못 할 때면 제때 도와줬습니다. 옷을 입고 벗기 힘들어 자지 않고 밤 12시 정념을 다 발한 후 자야 할 때면 그는 제가 정념을 다 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눕는 것을 도와준 뒤에야 자러 갔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안 친척과 친구들이 전화하면 저는 그 기회를 빌려 제 실제 상황을 알려주며 사부님의 무량한 자비와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실증했습니다. 과거 남편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제가 진상을 알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집에서 파출소 경찰이 저를 불법적으로 납치해 가두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후 그 두려움을 없애지 못해 제가 남에게 대법 진상을 알리는 것을 들으면 겁을 냈고 그로 인해 자신도 병투성이가 됐기에 저는 되도록 그를 피해 진상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의 눈앞에서 사람들에게 대법의 신기함을 증명했는데 그는 저를 교란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환경이 좋아진 것은 예전에는 바라도 이루지 못했던 일인데 이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인연 있어 득법해 굳건히 수련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결련(潔蓮)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16년 된 여성 대법제자이고 올해 68세입니다. 이제 수련 중의 일부 경험을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1. 남편을 돕기 위해 대법 수련에 들어서다

1995년 남편이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했고 성격과 몸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몇 년 뒤 근본적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 두 차례 장사를 하다가 수십만 위안을 잃었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바르지 못한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야위고 시력이 갈수록 심하게 떨어지더니 마침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제 생각을 말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수련인은 병이 없어. 나는 안 가.”

남편이 병원에 가지 않으니 어떻게 도와야 하겠습니까? 오직 수련 면에서 돕는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수련을 할 줄 몰랐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던 2011년 6월 저는 ‘전법륜’을 집어 들었습니다. 제 목적은 남편의 바르지 못한 상태가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인지 알아보고 대법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법륜’을 읽고 나니 사부님께서 하신 법이 너무 훌륭했고 남편이 그렇게 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잘 수련해 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법 수련에 들어선 저는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도태되면 얼마나 안타까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80여 명을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또한 진상 지폐로 사람을 구했으며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트나 큰 장에 가든 평소 물건을 살 때든 모두 진상 지폐를 사용했고 사부님의 가지(加持) 아래 줄곧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진상 지폐를 받고 위에 있는 글자를 보면 저는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위에 있는 진상을 한 번 읽어 보세요. 큰 재난이 올 때 구원받으실 겁니다.” 중생들은 모두 기쁘게 받아갔습니다.

2. 수련인의 마음가짐으로 남편을 돕다

저는 직장인이라 낮에는 시간이 없어 모든 여가 시간을 이용해 부지런히 법공부와 연공을 했습니다. 협조인의 조율로 우리는 한 법공부 팀에 가서 법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먼저 남편에게 옷을 입혀주고 저녁이면 스쿠터를 타고 남편을 태워 2km 떨어진 법공부 장소에 가서 법공부를 했으며 비바람이 불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법공부를 할 때 남편이 시력이 심하게 떨어져 글자를 선명하게 보지 못했기에 제가 그를 이끌며 법을 읽었고 제가 한 구절 읽으면 그가 한 구절 읽는 식으로 5년을 끈기 있게 해냈습니다.

매일 집안일, 직장일, 남편 생활을 돌보는 일에 법공부와 연공까지 더해져 저는 몹시 바빴지만 마음속은 달콤했습니다. 제가 대법제자가 됐고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이 손해 본 돈에 대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고 생활에서도 자아를 내려놓고 모두 그가 말하는 대로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제 아내가 대법을 배운 뒤부터 우리집에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졌고 평온함과 상서로움이 찾아왔어요. 대법이 다년간의 가정 갈등을 풀어줘서 곧 깨질 뻔했던 가정이 서로 배우고 서로 닦는 행복한 수련의 가정이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대법의 불광 속에 목욕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3. 병을 없애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신기한 효과

대법을 수련한 후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자 몸이 좋아졌습니다. 수련 전에는 자궁근종이 여러 개 있어 출혈이 잦았고 길게는 40여 일이나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연공을 한 지 한 달 남짓 지나자 다년간 저를 괴롭히던 부인과 질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대법이 병을 없애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2015년 왼쪽 윗니 앞에서 네 번째 치아가 자주 아팠고 치근이 눈초리까지 당기며 아팠습니다. 어느 날 통증을 견딜 수 없어 오른손으로 주먹을 꽉 쥐고 팔을 치켜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부님, 저는 진짜 치아를 원합니다!” 그러자 치아가 정말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치아는 약간 검지만 아주 튼튼합니다.

4. 진상 자료를 배포해 사람을 구하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전 세계, 모든 세상 사람은 다 나의 친인(親人)이었다. (박수) 그러한 가장 나쁜 사람을 포함해서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때에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

저는 늦게 득법했지만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은 매우 급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배우고 서로 닦으며 함께 정진했습니다.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협조인의 조율 아래 우리는 진상 자료 배포라는 사람을 구하는 항목을 선택해 도심의 모든 상점과 주거 지역에 진상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남편 시력이 좋지 않아 제가 그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혹한이든 무더위든, 춘하추동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꾸준히 견지했습니다. 먼저 도심의 상점부터 배포하고 그다음 일부 아파트와 주거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배포하는 과정에서 사부님의 보호 속에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상점에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상점에 CCTV가 있고 오가는 사람이 많으며 치안 순찰 경찰이 가까이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바른 일이고 사부님의 보호가 있으니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여름 어느 날 밤, 이슬비가 내렸고 이날은 마침 성장이 우리 현에 오는 날이라 경찰차가 몇 대 더 배치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원래 계획대로 출발했습니다. 진상 자료를 배포하며 중간쯤 갔을 때 어느 상점 계단에 남편이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다시 올라가도 또 미끄러져 내려와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으로 잘못 봤거나 신발 밑창에 뭔가가 붙었다고 생각했지만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마침 경찰차가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사부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2012년 가을 어느 날 밤 우리는 6~7백 부의 진상 자료를 챙겨 배포하러 나갔고 도심의 중앙 거리에서 서쪽 거리로부터 동쪽으로 배포해 나갔습니다. 동쪽 거리의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남편이 시력 때문에 실수로 자동차 정비용 수로에 빠졌습니다. 수로는 깊이가 1.5 m 정도 되고 폭이 두 자쯤 됐습니다. 남편의 첫 반응은 '사부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였습니다. 그가 수로에서 나왔을 때 몸을 만져보니 끈적끈적한 기계 오일투성이였고 신발도 걸려 벗겨졌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챙겨간 진상 자료를 모두 배포한 뒤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2013년 초가을 어느 날, 우리는 여느 때처럼 밤 12시 정념을 발한 뒤 미리 준비해 둔 700여 부의 진상 자료를 챙겨 배포하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바빴던 사람들은 이미 꿈나라에 빠져들었고 하늘의 뭇별은 눈을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뭇별이 비치는 속에서 길 양쪽의 가로등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우리 둘은 각자 200부 넘는 진상 자료를 짊어졌는데 큰 배낭 하나가 꽉 찼고 목에도 가방을 하나 멨습니다.

우리는 도심의 북쪽 도로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양옆의 상점에 하나씩 배포한 다음 중앙 거리로 돌아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습

니다. 새벽 3시가 넘어 거의 다 배포해 갈 무렵 남편이 집중해서 문에 진상 자료를 붙이고 있는데 남편과 3m 떨어진 도로변에 있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무슨 자료를 배포하는 거야?”라고 묻자 남편은 “파룬궁 진상 자료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어디 사람이야?”라고 했고 남편은 “제가 어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입니다.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중생이 진상을 이해해 큰 재난이 올 때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너희를 못 잡아서 안달이었는데 내가 바로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야. 공산당이 못하게 하는데 넌 아직도 이걸 하고 있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가와 남편의 목에 걸린 가방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공안국으로 가자!” 남편은 “헌법에 국민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돼 있으니 파룬궁 수련은 위법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110에 신고하겠어”라고 말하고는 잡고 있던 가방을 놓고 휴대폰을 꺼내 110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사부님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저 사람의 전화가 연결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일념을 내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번을 걸었지만 정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맞은편에서 자료를 배포하다가 대치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고 장자석(藏字石: 중국공산당이 멸망한다고 기록된 고대의 예언석)과 ‘천안문 분신’ 조작 사건을 이야기하며 파룬궁을 수련해 심신에 혜택을 받은 장점을 말해 줬습니다. 그는 그래도 납득하지 못하며 “파룬궁을 수련하는 너희가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은 대학 시험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련은 아주 엄숙한 일이며 수련은 좋지 않은 것을 닦아 없애야 비로소 수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남편은 또 이 사람에게 권했습니다. "선생님처럼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파룬궁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면 선생님과 가족 모두에게 좋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이 말하는 이런 건 나도 다 알고 우리 가족 중에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가버렸습니다. 이는 사부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공동 현관문은 밤 11시경이면 문이 닫히지만 우리가 밤 12시 넘어 진상 자료를 배포하러 나갈 때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도심의 상점에는 이미 세 번을 돌렸고 진상 자료 2만여 부를 배포했습니다.

5. 가정 자료점을 세우다

정법이 끊임없이 추진됨에 따라 사람을 구하는 시간이 갈수록 다급해졌고 우리가 배포하는 진상 자료의 수요량도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다른 자료점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자료를 만들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우리집에도 '작은 꽃'(가정 자료 제작소)이 한 송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자금을 직접 마련하고 스스로 자료를 제작해 제본하고 직접 배포했으며 주로 명혜망 2-in-1 진상 정기간행물과 낱장 진상 자료를 인쇄해 다른 자료점에 손을 벌려 진상 자료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했고, 기다리거나 의지하고 요구하는 일과 자료를 가져오고 배달할 때의 운송 안전 문제를 피했으며 수련생들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2021년 한 수련생이 타지에 손자를 돌보러 가면서 제가 그녀의 진상 자료 제작 항목을 맡아 자료를 만들고 배달하며 탁상달력을 만

드느라 일 년 내내 몹시 바빴습니다. 저 역시 60세가 넘은 사람이라 큰 종이 상자를 힘주지 않고는 위층으로 나르기 어려웠고 만드는 과정이 몹시 고생스러웠습니다. 저는 '나는 대법제자다. 고생하는 것은 내가 수련하며 심성을 높이는 일부분이고 이것이야말로 내 심성을 높일 좋은 기회이며 대법제자는 못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줄곧 평온하게 진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법제자가 해야 할 일을 했기에 마음이 매우 유쾌했습니다.

6. 시련과 마주해도 굳건히 수련하다

2016년 5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련에 들어선 이후 남편은 비록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세 가지 일을 할 때 우리는 서로 협력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저는 매우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정을 내려놓지 못해 아주 고독함을 느꼈고 다소 의기소침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길로 나가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가 함께 사람을 구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신의 이런 상태가 옳지 않으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사악만 기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마난(魔難)으로, 아무리 큰 고통으로 여기든지 간에 모두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수련했기에 비로소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마난 중에서 업력을 없애버릴 수 있고, 마난 중에서 사람 마음을 제거할 수 있으며, 마난 중에서 당신으로 하여금 제고하여 올라오게 할 수 있다."(각지 설법 8-2008년 뉴욕법회 설법)

저는 마땅히 빨리 시련에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제가 남편을 돕기 위해 대법 수련에 들어선 것이라 이번에 남편이 떠났으니 제가 더는 수련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련이란 곧 어려운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든지, 사악이 미친 듯이 박해하든지, 생사에 관계되든지를 막론하고, 당신이 여전히 수련의 이 한 갈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가면서 인류사회 중의 어떠한 일도 수련의 길에서 행보를 교란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정진요지 2-길)

사부님의 법은 제게 무척 큰 힘을 더해주셨고 제게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더해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지옥에서 건져내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제게 우주 대법을 전해주시어 제가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할 수 있게 하셨으며 선타후아(先他後我), 무사무아(無私無我)의 정각(正覺)으로 수련 성취해 사부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자 영예입니까! 남편이 떠난 것은 우리 부부의 인연이 이미 다했음을 설명하며 이는 제 수련의 길에서 가장 큰 시련입니다. 사부님 안심하십시오. 제자는 남편에 대한 정을 닦아 없애고 굳건히 수련해 나가겠습니다.

16년의 대법 수련에서 제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존의 보살핌을 떠날 수 없었으니 사부님의 은혜는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는 성실히 법공부를 하고 법을 외우며 마음을 모두 세 가지 일에 쏟겠습니다. 사부님과 함께하는 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매번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용맹정진해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6년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수련 인연을 소중히 여기다

글/ 호주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존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여러 해 동안의 수련 체험을 교류할 기회가 생겨 무척 기쁩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어려움과 방황도 있었지만, 집착을 돌파하고 법리를 깨달은 후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갈등과 시험 속에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법 속에서 자신을 다시 인식하며 변화시킬 때마다 수련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됩니다.

아래에 세 가지 측면에서 수련 체험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1. 문제와 마주했을 때 진정으로 안으로 찾다

수련 중의 시험은 종종 일상적인 작은 일에서 나타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련인으로 여기고 감정을 내려놓으며 가장 먼저 안으로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끊임없이 수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번은 좀 먼 곳에서 열리는 단체 활동에 참가해야 해서 한 수련생에게 편승할 차가 있는지 문자로 물었습니다. 수련생은 자신도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간다고 답한 후, 제가 평소 사람들을 대할 때 남을 비난하고 요구하며, 또 남의 문제를 말하고 성격도 비교적 강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을 보고 마음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저 자리가 있는지 물었을 뿐인데, 어째서 오히려 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생각했습니

다. 이 수련생과 평소 비교적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그녀가 저를 이렇게 보는지 의아했습니다. 당시 첫 반응은 억울함이었고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서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수련인이니 갈등에 부딪히면 당연히 먼저 안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수련생과 지낼 때 어떨 때는 말을 조심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출발점이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했던 건 아닐까? 수련생의 일깨움은 자신을 다시 살펴볼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로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점차 인식했습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마땅히 변화시켜야지, 다른 사람이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억울해하며 서둘러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당시에 상대방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먼저 감정을 내려놓고 개선해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생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일깨움에 감사드려요, 앞으로 주의할게요.” 문자를 보낸 후 마음이 오히려 약간 홀가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해명하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일깨움을 받아들이며 반성할 때, 마음가짐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그러나 일깨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저 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언행에 유의하여 진정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법공부를 통해 갈등에 부딪혔을 때 단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동요했는지 안 했는지를 더욱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서둘러 변명하려 하는가? 단지 다른 사람이 좋은 점만 봐주기를

희망하면서 부족함은 기꺼이 직면하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수련인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가 아니라, 아직 어느 부분을 잘하지 못했는가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안으로 찾는 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진정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생각과 언행에서 부족함을 찾아내며, 이후의 교류에서 점차적으로 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부딪힌 갈등을 자신을 제고하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2. 시련 속에서 정념을 지키다

수년간 뜻밖에 넘어진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경을 회상해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시험들은 지금까지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매번 일이 지난 후 회상할 때면, 사부님의 자비로우신 보호에 무한한 감사를 드렸고, 이는 또한 수련 중에 아직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반성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처음 넘어졌을 때는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당시에 내리막길 커브를 돌 때 갑자기 앞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일은 매우 순식간에 일어났고 마음속 첫 번째 생각은 바로 이랬습니다. '나는 수련인이야, 괜찮아.'

일어난 후 자전거가 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다리 관절에 약간 멍이 들었으며, 머리가 땅에 닿을 때 '쿵' 하는 소리도 들렸으나 다른 이상은 느끼지 못해 즉시 자전거를 일으켜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뜻밖의 일은 매사가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고 느끼게 했고, 일상생활에서 아직 주의하고 개선해야 할 곳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기 시작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넘어진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홀로 주택가에 진상자료를 배포하러 갔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무더웠고 오랫동안 걸어서

비록 피로를 느꼈으나, 민중이 조금이라도 일찍 자료를 받아 진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여전히 매우 기뻤고 계속 견지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바로 어느 거리에서 몸을 돌렸을 때 갑자기 얼굴이 땅을 향한 채 넘어졌는데, 뒤에서 마치 어떤 힘이 훅 민 것 같았습니다. 당시 머리는 매우 맑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법제자야! 괜찮아!'

즉시 일어났고 왼손 피부가 약간 까져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얼굴을 만져보며 다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사부님의 보호에 감사드렸습니다.

세 번째 넘어진 것은 올해 초였습니다. 외지에서 공항에 가려고 외출을 준비할 때 바닥에 쌓인 눈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온몸이 뒤로 발라당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곁에 있던 두 수련생 모두 깜짝 놀랐는데, 즉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수련인이야! 괜찮아!' 수련생들이 양쪽에서 부축해 일으키며 상태가 어떤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세 번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돌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첫 번째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당시에 생각한 것은 '나는 수련인이야! 괜찮아!'였습니다. 매번 무사히 지나올 때마다 사부님의 자비로우신 보호에 감사드렸습니다. 동시에 사부님의 보호가 있다고 해서 요구를 늦춰서는 안 되며 더욱이 일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반성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아직 잘 닦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평소 수련 중에서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사고하게 했습니다. 수련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일이 뜻밖의 일처럼 보인다고 해서 부족함을 깊이 찾아보는 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향후 수련인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과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며, 제때 부족함을 찾아내어 끊임없이 자신을 제고하고 정법시기 수련의 길을 잘 걸어가려 합니다.

3. 사람의 생각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사람 구하는 신심을 확고히 하다

2000년부터 줄곧 현지 도심의 고정 진상 장소에 참여해 민중을 향해 진상을 알려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줄곧 이 항목에 견지하며 참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종일관 처음의 열정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점차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활동 시간이 되면 평소처럼 문을 나섰고, 일을 하는 것이 틀에 박히게 변했으며 심지어 약간 무감각해지기도 했습니다. 외출하기 전 가끔 외롭고 힘들다고 느끼며 심지어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서 민중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받아 진상을 알아보거나, 진상을 알게 된 후 지지를 표하는 것을 보면 마음가짐은 변화되어 오늘 제대로 왔다고 느꼈고 또다시 처음의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반성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견지해 왔는데 때로 무감각함을 느끼고 심지어 외출하고 싶지 않기까지 한 걸까? 이것이 나태한 마음과 안일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에 익숙해지면 견지하는 것을 일상다반사로 여기기 쉽고, 매번 사람을 구하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수련이 단지 기계적으로 일을 완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매 순간 정념을 유지하고, 왜 진상 장소에 가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설령 매일 단 한 사람만이 와서 자료를 받고 진상을 알아간다 해도 정성을 다해 할 가치가 있습니다. 나태함과 안일함을 돌파하고 진정으로 걸어 나갈 수 있을 때, 사람을 구하는 신심 또한

더욱 확고해집니다.

계속해서 참여함에 따라 또 새로운 시험에 부딪혔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르기에 민중이 질문을 제기할 때면 자주 대답하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 마음속으로 매우 괴로웠고, 심지어 계속 이곳에 남아 있는 것이 적합한지 의심하며 한때 뒷걸음치려는 생각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매일 수많은 민중이 왕래하는데 제가 만약 떠난다면, 그리고 그때 이곳에 다른 수련생도 없다면 이 자리가 비워져 민중이 자료를 접하고 진상을 알아볼 기회가 하나 줄어들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또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떠나고 싶은 생각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생각은 반복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능력이 제한적일까 봐 걱정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움 때문에 이 사람 구하는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리로 대조해 보았습니다. 언어적인 어려움이 확실히 존재하지만 진정으로 동요하게 만든 것은 염려하는 마음과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만약 영어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할 수 없고 마땅히 떠나야 한다고 여긴다면 이는 사실 역시 사람의 기준으로 일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여전히 잘할 수 있는 일들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알고 싶어 하는 민중을 마주하여 더 이상 말을 못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힘껏 상대방을 도왔습니다. 자료를 건네주며 자세히 읽어 보라고 청했고, 영어를 할 줄 모른다는 사실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감동하게 한 것은 많은 사람이 모두 깊이 이해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깨를 툭툭 치며 괜찮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저

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이러한 선의의 반응들은 비록 능력이 제한적일지라도 단지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을 힘껏 잘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또한 늘 하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보느라 여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다른 시험에도 부딪혔습니다. 어떤 중국인은 자료를 건네받은 후 걸어가면서 찢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흉악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으며 심지어 위협하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마음속으로 두렵고 긴장되었으며 심지어 위축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법공부를 하고 자신을 대조해 봄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혹은 몇 마디 위협 때문에 동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점차 인식했습니다. 진정으로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생겨나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전히 진상을 알아야 할 수많은 민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진상 장소에 온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일시적인 압박과 교란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웠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표면적으로는 활동 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집착에 직면하고 닦아 없애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점차 인식했습니다. 최초의 나태함,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부터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것, 나아가 악의에 직면했을 때 생겨나는 두려운 마음까지 모든 상황은 아직 제고해야 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보게 해주었습니다. 오직 문제에 부딪혔을 때 끊임없이 안으로 찾아야만 점진적으로 장애를 돌파하고 더욱 확고하게 사람 구하는 일을 잘해낼 수 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경문 '험악(險惡)을 멀리하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상을 알렸고 대법활동에 참여했고 대법항목에 참여했다고 해서 대법을 위해, 사부를 위해 무얼 했다고 여기지 말라. 그것은 사부가 당신들에게 서로 구조(救助)하게 하고, 서로 사람을 구하는 동시에 자신을 구도하게 한 것인데, 이것은 말후에 중생들이 서로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법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부님의 법은 사람을 구하는 항목에 참여하는 것이 곧 잘 닦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더욱 명백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동시에 또한 끊임없이 집착을 닦아 없애며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자신을 제고해야 합니다. 일을 견지해 나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과정 중에서 진정으로 수련해야 하며 그저 일을 얼마나 했는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수련을 되돌아보면서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아직 제고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향후 사부님께서 내려주신 수련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법 속에서 끊임없이 바르게 고치며 확고하게 사람 구하는 일을 잘하여,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를 저버림이 없도록 하려 합니다.

이상은 제 한정된 층차에서의 교류이니 부족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존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호주 법회 원고)

두 형제: 대법 속에서 성장하며 법을 외우고 마음을 닦아 난관을 돌파하다

글/ 대만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 대법제자 ○○○(동생)입니다. 심득교류를 나눌 기회를 얻게 돼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아기 때 아빠가 매일 법을 읽어주셨는데, 하루는 아빠가 '홍음(洪吟)'을 다 읽고 나서 책을 펴서 보여주셨을 때 갑자기 멈칫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치며 웃고 손발을 끊임없이 바둥거려서, 마치 어떤 아름다운 장면을 본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동화책을 볼 때는 없었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흥분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알게 된 건, 한번은 아빠가 형이 어릴 때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만 아무것도 못 봤다며 시무룩해하자, 아빠가 그때서야 말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곧 믿지 않는 이것은 하사(下士)의 견해이다. 사람은 미혹 중에서 업을 너무 많이 빚어, 본성이 미혹되었으니 어찌 볼 수 있겠는가. 깨달음(悟)이 먼저이고 보는 것은 나중이라, 마음을 닦고 업을 제거하여 본성이 나와야만 비로소 볼 수 있다."(정진요지-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저는 무언가를 보았든 못 보았든, 설령 보았지만 잊어버렸을지라도 언제나 착실히 수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형과 등교할 때 '홍음'을 한 수씩 외우고 있는데, 벌써 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형은 5살이 되기 전에 '논어(論語)'를 다 외웠고 '홍음'은 훨씬 더 빨리 외웠지만, 저는 늘 외우는 속도가 느렸고 자주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치 머리가 트인 것처럼 법을 훨씬 더 확실하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새 학기에 선생님이 옛시와 교과서 본문을 외우라고 하셨을 때, 예전처럼 자꾸 까먹던 모습에서 벗어나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암기 도우미로 뽑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법을 외우는 것이 정말 좋다고 느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력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한번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 몸이 아주 불편했을 때, 연공하기는 싫고 약을 달라고 떼를 쓴 적이 있습니다. 반면 형은 더욱 열심히 법을 듣고 연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형보다 결석한 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형은 며칠 만에 나았지만 저는 2주나 끌다가 겨우 나았습니다. 이는 정말 제게 큰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안으로 찾다 보니 제 안의 나태함, 의존심이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에 다른 친구를 몹시 괴롭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자주 저를 때리고,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신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다"라는 법리를 실천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친구의 요요 조장이 됐을 때도 과거의 일로 따지지 않고 오히려 기술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매번 중국 대법제자들이 박해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슬퍼서 펑펑 울곤 합니다. 한번은 사부님께서 사부님을 도와 중생을 구할 기회를 안배해주셨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대법 글귀가 적힌 옷을

입고 홍법 활동에 참가했는데, 행사가 끝난 후 연못에 물고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온 노부부가 우리가 얌전하다며 물고기 먹이통을 주셨습니다. 아빠, 엄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분들에게 진상을 알리셨고, 과정은 아주 순조로워 결국 두 분 모두 삼퇴(중국 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하셨습니다. 저도 노부부 중 할머니께 진상을 알리며 사람을 해치는 공산당 당문화(黨文化)를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비참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할머니의 오랜 오해도 풀리셨고 마침내 중공의 진짜 모습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 모두 아름다운 미래를 갖게 될 것임을 압니다. 사부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법 어린 제자 ○○○(형)입니다. 아빠 말씀에 따르면 제가 2살이던 해 '대만 수련심득교류회'에 참가한 다음 날, 집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아빠 저기 보세요, 파룬따파(法輪大法)예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어디 있냐고, 파룬이냐고 물으시자, 저는 손가락으로 천장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저기요, 파룬이에요, 만(卍) 자 부호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파룬 도형을 펴서 이것이 맞냐고 물으시자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아주 순수해서 사부님께서 격려해주신 것이라며 사부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게 심각한 소업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아빠, 엄마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 급한 마음에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의사는 알레르기성 천식이라며,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심하게 숨을 헐떡이게 되니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물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무척 놀라셨습니

다. 제가 너무 어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다가 아예 저 스스로 결정하게 하시려고, 약을 먹고 싶은지, 연공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가부좌를 배우고 나서 아주 편안하다고 느꼈기 때문인지 저는 연공을 선택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부좌를 하자마자 증상이 가라앉았고, 며칠 뒤에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심각한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토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안쓰러워서 제게 계속 연공할 것인지 물으셨고,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그럼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동생은 매일 밤 가부좌를 했고 이어서 법공부와 발정념을 시작했으며, 5장 공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시련이 이어졌고, 소업은 갈수록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심지어 연공을 하면 기침이 오히려 더 심해져서 얼굴에 핏대가 섰고, 힘이 빠져 바닥에 엎드려 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제 곁을 지키며 그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워주실 수밖에 없으셨고,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저와 함께 안으로 찾으며 어디를 잘못했는지, 또 어디서 화를 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한 차례 또 한 차례 고비를 이겨내다 보니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게 좋아졌습니다. 매일 꾸준히 법공부와 연공을 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더니, 천식도 사라졌고 이제는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심성을 닦는 방법도 점차 알게 됐습니다. 한번은 사람을 때리고, 욕하길 좋아하는 친구가 숙제를 어려워했습니다. 비록 저를 자주 괴롭히던 아이였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 호의를 무시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보러 갔습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자 그 친구는 다시 제게 달려와 물어봤습니다. 저는 '전법륜'에서 사부님께서 남에게 선하게 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끈기 있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끌고 게임을 하러 가자고 했을 때, 명혜라디오 이야기에서 인터넷에 중독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있었지만,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게임이 전혀 선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한번은 억지로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기막힌 타이밍에 마침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아빠는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유모차를 밀 때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앞을 보지 않은 채 유모차를 세게 밀었다가 가로등에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퀴가 꺾이면서 유모차가 방향을 틀었고, 넘어지지도 않은 채 딱 멈췄다고 합니다. 아빠는 부딪혔으면 정말 큰 일 났을 거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고 속으로 사부님께 감사드렸다고 하셨습니다.

대법 수련 덕분에 저는 건강하고 착한 아이가 됐고, 아빠, 엄마는 제가 수련하며 얻은 혜택들을 인연 있는 친구 부모님들께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또래 친구 몇 명이 우리집에 와서 가부좌를 배웠는데, 다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자 아주 강하고, 편안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한 친구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빠에게 가부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른 친구도 할머니에게 '진선인(眞·善·忍)'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또 몇몇 선생님과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션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들 모두 긍정적으로 진상을 이해했고, 내년에도 다시 보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1학년 때 저는 NTD TV의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삼촌, 이모뻘 되는 어른들은 모두 아주 좋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피곤할 때나, 배고플 때나, 아니면 소업 중일 때 언제나 저를 먼저 배려해주셨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그 프로그램에 대해 말해주자, 친구들이 정말로 찾아서 보았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서 더 어릴 때부터 참여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전통으로 돌아가면 길이 하늘로 통하리니”(홍음 5-다시 만들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신전(神傳) 문화를 함께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홍음 2’의 ‘정진정오(精進正悟)’ 한 수를 수련생 여러분과 나누며 함께 격려하고자 합니다.

“법 공부 태만하지 않으니

변화가 그중에 있도다

확고하게 믿고 움직이지 아니하니

과위가 올발라 연꽃으로 피어나네”

제 층차가 한계가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대만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 발언 원고)



▲ 2026년 11월 7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와 신베이 각 지역에서 온 파룬궁 수련자들이 타이베이 중정기념당 자유광장에 모여 단체 연공 및 홍법 행사를 열었다.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96명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865만 5267명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